

## 근무하다 다치는 충남경찰관 크게 늘었다

2017년 42명→71명 증가 · 범인 피습으로 인한 공상 15명→25명으로 늘어

충남지역에서 근무 중 피습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경찰공무원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무수행 중 경찰이 범인에게 피습당해 부상을 당하는 사례는 늘었지만 범인 진압장비인 테이저건 사용은 매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공상 경찰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경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장에서 범인에게 피습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총 5,198명이었고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45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2016년 1,858명에서 2017년 1,604명으로 감소

했지만 2018년 다시 15.8% 증가하여 1,736명이었다. 특히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이 가장 크게 늘어나 2017년 449건에서 2018년 520건으로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공상 사유인 ▲ 안전사고(711건→769건, 8.2%)나 ▲ 교통사고(399건→407건, 2%)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상 경찰공무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충남으로 2017년 42명에서 2018년 71명으로 69% 증가했으며, 특히 범인피습으로 인한 공상이 15명에서 25명으로 66.7% 늘어났다. ▲ 충북(46명→73명, 58.7%), ▲ 전남(35명→81명, 131.4%), ▲ 서울(323명→422명, 30.7%), ▲ 경북(59명→75명, 27.1%) 등의 순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증가했다.

반면,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 1천정에 달하는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사용빈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저건은 2016년 전국에서 433건 사용됐지만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으로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됐다.

정인화 의원은 "범인피습 등에 의해 부상을 입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의자의 폭력으로부터 경찰의 안전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범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

이정복기자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 김정섭 충남공주시장과 환담나눠

김성구<사진 왼쪽>대전투데이 사장은 17일 오전 충남 공주시장 집무실에서 김정섭 공주시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정섭 시장은 "민선 7기 지난 1년 동안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곳곳을 돌며 분주히 움직였다."면서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에 반영하는데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동학농민운동의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주 우금티 도로 인근에 안내 표지판을 확충하고, 기념 조형물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최근 공주시청 본관 1층 로비를 군민들이 언제든지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신비람 북카페'로 조성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 전국 돼지농장 48시간 이동중지... 위기경보 '심각' 격상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발표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 30분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식품부는 10km 이내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를 비롯해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소를 운영,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우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오늘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이동일시중지(Sandh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일주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 6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증상 발현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 고유제 봉행

양승조 지사, 17일 논산 돈암서원에서 전통 의식 고유례 참여

충남도는 17일 논산 돈암서원(사적 제383호에서 세계유산 등재 기념 고유례를 개최했다.

이번 고유례는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선현(先賢)에게 고하고, 경사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김건중 돈암서원 원장,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에서는 현판으로 양지사와 황 시장이 사당인 송재사에서 고유례를 올렸다.

돈암서원은 전국 8개 서원과 함께 지난 7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서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조선 중기 유학자 사계 김장생 선생(1548~1631)의 덕을 기리기 위해 1634년 사계의 제자와 지역 사림이 건립했으며, 조선 효종 10년(1659년) '돈암'이라는 현판을 하사했다.

돈암서원에는 보물 제1569호 응도당을 비롯해 유경사, 양성당, 장관각 등의 건물과 하마비, 송덕비 등이 남아 있으며, '황강심기', '사계유교', '상례비요' 등의 서적이 보존돼 있다.

도에서는 돈암서원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 협약'과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 등 국제규범에 근거한 유적 보존 관리



를 시행 중이며 보존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통 의식인 고유례를 통해 논산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알리고, 경사를 함께 축하했다"며 "앞으로 돈암서원에 대한 관심이 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재 보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돈암서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등 문화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제65회 백제문화제

2019.9.28 ~ 10.6

주최: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주관: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후원: 충청남도문화재단, 충청남도문화재단, 충청남도문화재단, 충청남도문화재단

제65회 백제문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개막식 9.28(토) 18:30 금강산관광원 주무대 (사외, 백제문화재단주최)
- 충진성씨제례 9.29(일) 17:30 충동로 - 충동사거리 - 안동공원
- 충진한타지아 뮤지컬 '무령의 꿈' 9.29(일) - 10.5(토) 21:00 금강 미로실 특별무대
- 백제마을 '고마촌' 9.28(토) - 10.6(일) 10:00 - 22:00 금강 미로실
- 백제별빛장원/백제동물향연 9.28(토) - 10.6(일) 18:00 - 23:00 금강 미로실, 금강고 및한
- 백제플레이존 9.28(토) - 10.6(일) 금강산관광원 (키즈게임, VR-AR체험존, 공주스마트시티존 등)
- 백제주의 향연 9.28(토) 14:00 금강고
- 백제향설연희 10.5(토) 17:00 충진성 공백루
- 세계유산 등재 4주년 기념 축하쇼 10.3(목) 18:30 금강산관광원 주무대 (백제리, 김연사)
- 화합과 감사의 밤 (백제식) 10.6(일) 19:00 금강산관광원 주무대 (조각점)



#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확정

## 시민 총회 통해 최종확정... 건설·교통·환경분야 76%

대전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시민 총회를 통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 10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사업비가 100억으로 확대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확정됐다는 데 큰 뜻이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참여예산 선정 과정에서 대전시민들은 예년의 10배에 달하는 1,541건을 제안했으며,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확정을 위해 온라인 시민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시민에게 예산을 결정하는 문을 수평으로 열어 집단 지성의 힘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민주적 공동체를 실현한 것'이어서 남다른 의미가 크다.

주목할 만 한 점은 2015년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이 주로 건설, 교통, 환경 분야 76%였다면, 올해는



청년, 청소년, 공동체,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제안과 선정으로 시민들이 대전시에 바라는 분야가 다양화됐다는 점이다.

올해 처음 시도한 시민총회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투표단의 현장 투표 방식으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는데 제안자들이 직접 사업을 설명하여 투표단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중학생이 제안 설계자로 나와 청소년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큰 주목을 끌었다.

시민총회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 발원방향에 대한 허태정 시장에게 즉답을 묻는 시민공청회도 열렸으며, 시민들은 주민참여 예산에 소외되는 계층·분야가 없나 유심히 살펴보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꼭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정참여형 48건(75억1천만 원), 지역참여형 51건(20억 원), 동지역회의 지원사업 36건(4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0년 사업이 시작되면 매 분기별로 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도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제안부터 최종 선정까지 시민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시민의 의사결정 기회와 권한을 더 강화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선기자

## ‘공익형직불제’ 농정개혁 공론의 장

박원주 “공익형직불제는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농정개혁”



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원주 의원(충남 천안시)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주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신문이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박원주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국회 농해수위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농민신문 이상욱 사장, 한국농축

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업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에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 직불제 예산의 약 80%가 쌀에 편중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방식 때문에 쌀 외 타작물 재배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장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11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차기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동시

에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 면적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 구분 없이 통한 확대 개편하고, 소농직불금을 신설하는 등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후 국회 농해수위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직불제 관련 법률안인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다섯 차례의 법안심사, 여야 간사회의 등을 통해 차기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직불제의 개편방향, 재정 규모,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내년도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를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하여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내년도 농식품부 직불제 예산을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이 날 열린 토론회는 공익형직불제의 틀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일명 '공익직불제법'이 지난 9일 박원주 의원 대표로 발의됨에 따라 공익형직불제의 개편방향을 살펴 보고 각종 제도적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회=김성구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지역문화예술인들과의 정책간담회

문화예술분야의 현정의 소리 듣고 실현 가능한 정책 개발하기 위해 추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는 16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문화예술인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돌을 맞아 지난 4월에 출범한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위원장:이해찬)'의 세종시당 새100년위원회 산하 '문화예총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희·노종용)'가 주최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예술분야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예총 인천선비 세종시연합회장은 "특화된 문화상품을 통하여 세계적인 문화예술 선도 도시로 세종시가 발전하길 바란다"며 세종시의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숙고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사민예총 권덕순 사무처장은 '세종시의 뿌리를 알고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자'며 역사와 새로운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문화콘텐츠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연장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종시당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문화상 의장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 참석



문화상 국회의장은 17일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의 처절하고 숭고했던 역사를 찾고 그 뜻을 기려야 한다. 우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CCM빌딩에서 열린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 및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다가오는 2020년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최재형 선생의 삶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부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최재형 선생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독립운동가와 선각자들의 삶이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게 현실이다. 독립운동가들의 조인적인 헌신 덕분에 오늘날을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뜰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치열한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성구기자

대전 중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최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17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0월 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79억 6000만원이 증액된 4749억 82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금산군의회, 금산인삼축제 홍보대사 역할 특독**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금산군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과 직원 등 20여명이 경상남도 통영을 방문, '제38회 금산인삼축제' 홍보대사 역할을 특독히 해냈다. 이날 의원들은 인삼축제 홍보 티셔츠를 입고 함양휴게소 상·하행선을 둘러 전국 각지의 여행객들에게 리플릿을 배부했다. 최종 목적지인 통영 시장에 도착해 장을 보러온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개막되는 금산인삼축제 방문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 김아진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위한 조레 발의

사회적약자 공공시설이용환경 편의 보장... 장애인문턱 낮춰



충남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 조레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아진 <사진> 의원

이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될 예정인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

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해 장애인과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을 설치 이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가 반영해 이동약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아진 의원은 "내년 제26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에 앞서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서천군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강신두 의원 대표발의)'와 '서천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이원호 의원 대표발의)' 외에 1건의 폐지안과 2건의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돼, 서천군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서천=이정복기자

## 충남도의회, 초·중학생 대상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8~20일 240여명 대상...의회 본회의장, 학교 강당서 개최

충남도의회는 오는 18~20일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과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토론 등 정책결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여건상

의회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지방자치 원리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동적 개념의 의정 체험 활동이다.

첫 날 서산 부춘중 1학년생 158명은 학교 강당에서 의정 선거와 2분 발언, 조례 상정과 의결 등 단건 처리 과정을 경험한다.

둘째날에는 서산 연안초(6학년 37명, 마지막날엔 천안 외촌초

5학년생 41명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일일 청소년 의원이 되어 토론과 표결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해 볼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내 모든 학생이 직간접적으로 지방의회를 체험해 지방자치와 의원의 역할을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태안군의회, 태풍 피해 입은 농가 찾아 일손돕기 분주



제8대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서 관심을 끌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김기두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 명이 태안읍과 남면의 태풍 피해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달 초 태안

지역을 강타한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돕고 군의원들이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보여주지식 일손돕기를 지양하고 어려운 농가를 찾아 적극적인 봉사에 나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기두 의장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 중국 우한시 문화교류단 접견

한·중서화교류전 통해 양도시간 우호증진 계기 마련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장은 17일 중국 우한시 문화교류단 단장 이안훙과 한·중 문화교류회 회원(회장 조종국)을 접견하고 양

도시간 우호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천 의장은 "중국 우한시와 2006년 우호협약을 체결한 이

후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오며 교류가 이뤄진 걸로 안다"며 "이번 한·중 서화 교류전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과학,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를 다지고 상생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 대전과 풍부한 과학자원을 가진 우한시는 양 도시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연내에 공식 초청 절차를 거쳐 상호 방문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김정환기자







## ● ● ● ● ●

## 제9회 전국상업경진대회개회식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8일 오후 3시 순천만 생태문화 교육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국상업경진대회개회식에 참석.

## 한·중 서화교류전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18일 오전 11시 대전예술가의 집에서 열리는 한·중 서화교류전에 참석.

## 제245회 임시회 개회식



황인호 동구청장= 18일 오전 10시 30분 동구의회에서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

## 태평고를 유등천 달빛음악축제



박용갑 동구청장= 18일 오후 6시 태평동 유등천 하에서 열리는 '제10회 태평고를 유등천 달빛음악 축제' 참석.

## 서구농업인 화합전진대회



장종태 서구청장= 18일 오전 10시 30분 기성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제13회 서구농업인 화합전진대회'에 참석.

## 2019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용래 유성구청장= 18일 오후 4시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9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석.

## 중간보고회 주재



박정현 대덕구청장= 18일 오후 3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덕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운영 중간보고회를 주재한다.

##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 기념 스토리박스 운영

## “시민들 추억과 희망의 공간”

대전시는 올해 시 출범(1949년 8월 15일) 70주년, 광역시 승격(1989년 1월 1일)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스토리박스를 운영한다.

스토리박스는 시민들이 대전의 지난날과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대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7030 기념 홍보 부스로 대전 발전 연표, 대전 홍보 동영상 상영, 대전 굿즈 소개 등을 담고 있다.

스토리박스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전한빛수목원 동원 정문 옆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그동안 중앙로 지하상가(5.31~6.30)와 세 차례의 행사장에서 운영한 바 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며, 인근 엑스포시민광장 등에서 축제나 주요행사 개최 시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스토리박스의 주요 콘텐츠는 대전의 역사와 관광지 소개, 홍보 동영상 상영, 트램 모형 및 도시철도 노선도 전시, 포토존 운영과 기념이벤트, 대전 굿즈 전시로 구성돼 있다.

대전의 역사는 1900년대 대전역 건립(1904년 6월)부터 현재 민선 7기(2018년 7월)까지 주요 역사적 사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 대전이 걸어온 길과 현재의 대전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

한다.

트램 모형과 도시철도 1~3호선 노선도를 함께 전시해 대중교통의 변화가 가져올 대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밖에 대전시를 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 동영상 상영과 관광 12선, 대전 굿즈를 소개해 대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념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스토리박스는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이 되는 올해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공간”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추억과 희망의 공간

으로, 방문객들에게는 대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인터넷 중독예방 연합캠페인

대전시는 1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중구 은행동 응봉정이 거리에서 대전스마트쉼센터 등 중독 관련 5개 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연합캠페인을 펼친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균형과 조절을 통해 건강한 스마트 사회를 구현하고, 다양한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중독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전스마트쉼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대전센터, 동구·서구·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참여한다.

이날 인터넷 중독예방 홍보부스에서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 자기관리 척도검사와 해설 ▲ 대인활동(팔찌 만들기) 체험 ▲ 건전한 한 줄 댓글 달기 ▲ 현수막 및 풍선을 이용한 거리 캠페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 서경원 정보화담당관은 “요즘 스마트폰의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과 학교,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시청 4층에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인 ‘대전스마트쉼센터(☎270-3223-5)’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동, 학생, 시민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 조성과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클래스가 다른 덕구네

## 과학CLASS 내달부터 운영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 대덕구청 청평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클래스가 다른 덕구네 과학CLASS’대덕 AI 과학 체험 교실’을 연다.

‘클래스가 다른 덕구네 과학CLASS’는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하나다.

특히 11월 9일 마지막 시간인 5회 차에는 인공지능 피아노와 바아울린 협연, AI 체험 부스 운영 등을 통해 과학에 관심 있는 모든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 페스티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융복합형 과학교육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30명, 중·고등학생 30명 총 60명을 모집하며, 다음달 1일 ~ 3일 대덕구 홈페이지(www.chadeok.go.kr)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교육공무처(☎608-6377)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 2019 대전 서구 마을축제 풍성

## 선정된 각 동의 축제 오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올 초 ‘2019 서구 마을축제 육성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각 동의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는 매년 주민들이 계획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양질의 마을 축제를 지원·육성하여 올해는 총 10개를 선정, 지난 4월 ‘제8회 정림동 벚꽃축제’와 ‘제3회 오랑, 오복 주머니 마을 축제’를 상반기에 개최하였다.

올 하반기에는 ▲가장동, 들말한마루 축제(9/28) ▲도마2동, 도마달, 그림마을 축제(9/28) ▲월평2동, 선사마을 축제(9/28) ▲도마1동, 도마실, 참살이 건강마을 축

제(10/9) ▲괴정동, 추억이 모이는 괴정골 축제(10/9) ▲갈마1동, 갈마마을 주민화합 마을축제(10/12) ▲월평1동, 반달마을축제(10/12) ▲갈마2동, 갈마골 단풍거리 축제(10/19) 등 8개의 마을 축제가 선선한 바람과 함께 성큼 다가온 풍요의 계절 가을에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나와 내 이웃을 위해 가지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주민들의 노력이 하나 둘 모여 ‘함께 행복한 서구 만들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강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박봉관 기자



## 사회적경제연구원-연구개발특구재단 맞은

## 대전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지난 16일 오후 사회적경제연구원(사협)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대전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사회적경제연구원 유승민 이사장과 최은남 팀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양성광 이사장과 기획조정실 이강준 실장, 사회적가치지원실 박은일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경제연구원 유승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한

협약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정보 지원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1사1사회적기업 결연사업과 가치같이 사회적기업 사회공헌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송병배 기자

## 제1호 공동육아나눔터 문 연다

## 동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조성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7일 용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첫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내빈 인사말씀, 테이프 커팅에 이어 공동육아나눔터 라운딩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 여성가족부와 신한희망재단의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뤄지게 됐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맞벌이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돌

봄 체계를 구축해 공동육아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배움을 얻을 수 있으며 부모들에게는 육아 관련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을 제공해 품앗이 돌봄공동체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 자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이하 자녀 가정이며 이용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7시로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저출산 극복과 품앗이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KPS, 어린이재단 대전본부에 ‘희망터전 만들기’ 후원금 전달

한전KPS(주)IPP사업센터(처장 서봉수)는 1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미애)에 에너지 효율 진단 및 맞춤형 개보수 지원사업인 “희망터전 만들기” 후원금을 전달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희망터전 만들기”는 열악한 환경의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보수해 아동들의 쾌적한 거주·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이중창 설치, 단열공사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3군데 센터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후원금을 지원 받은 환형

옥 대동지역아동센터장은 “한전KPS주식회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절실하면서 막막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크나큰 선물을 해주셨다. 다가올 추위 등의 걱정을 함께 염려해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이다. 앞으로 소중하게 바뀐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과 열심히 행복하게 뛰놀며 생활하겠습니다.”며 감사를 표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서봉수 한전KPS주)IPP사업센터 처장은 “저희들의 작은 도움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



▲ 서봉수 한전KPS(주)IPP사업센터 처장(왼쪽)과 박미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가운데), 변래수 한전KPS(주)PP사업센터 총무부장(오른쪽)이 함께 전달식을 갖고 있다.

면 그것으로 우리는 큰 보람을 느낀다. 오랜 인연을 지속해온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앞으로도 아이

들을 위한 사업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 기자



## ● 동 정 ●

## 범도민 정책서보터즈 발대식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8일 오후 1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6기 범도민 정책서보터즈 발대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년도 제5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

##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김석환 홍성군수는 18일 오후 1시 20분 청운대학교에서 열리는 남당 학연 구소에 참석.

2019 홍성군 일자리박람회  
참가 기업 25일까지 모집

충남 홍성군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2019 홍성군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할 구인기업을 9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와 관내우수 기업간의 만남을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에서 채용담당자와 구직자간의 면접을 실시하며, 증명사진 촬영, 메이크업, 적성검사, 간단한 건강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9월 2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홍성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방문 또는 이메일(lhj1210@korea.kr), 팩스(041-630-1407)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041-630-1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인·구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채용계획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I  
구제역 선제적 방역 실시

예산군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ASF(아프리카돼지열병)·AI(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의 선제 방역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은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ASF와 구제역에 대한 상황유지 및 관리를 비롯해 방역 추진과 신고접수, 홍보 등을 실시하며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여찰 강화에 나선다.

특히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발생해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군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련 차량에 대해 24시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는 물론 소독약품 1000kg을 긴급 구입해 양돈농가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방제단 6대, 군에서 2대의 방역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21명의 양돈농가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여부 확인 등 축산농가 예찰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내에서의 ASF 및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차단 방역과 철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ASF와 구제역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 예산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 양승조 지사 ‘전 시·군 거점소독시설 신속 설치·운영’ 등 당부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전 행력을 동원, 전시에 준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17일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 도와 시·군 가족방역 담당자, 한돈협회 등 축종별 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중점 추진 사항 전달, 방역 대책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대 양돈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도내 역학 관련 시설 10개소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조치를 17일 내 완료하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발병 중인 일시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해 축산 차량 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전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신속히 설치·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도내 모든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을

동원해 매일 현장 소독 및 방역 점검에 나서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잔반 급여 금지가 이뤄지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야생 멧돼지 포획 및 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일제 소독과 관련해서는 “시·군 및 공동방제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역살포기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양돈농가와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시설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파 속도가 구제역보다 느리고,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돼지와 접촉해야만 감염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어벽을 구축한다면 막아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차단방역을 강조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관련 도내 역학 시설이 양돈농가 7곳 등 총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해당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경기도 연접 지역을 중심으로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설치, 차단방역 활동에 집중토록 했다.

전국적으로 발병된 일시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해서는 오는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양돈 관련 전 축산차량 이동제한 조치를 준수토록 하고, 농장간 생축이동 금지, 양돈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의 조치도 취했다.

도는 이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 차단방역 및 소독을 강화토록 하고, 소규모 농가나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과 함께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소독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밖에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 318명을 동원,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소독과 방역 점검·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씨지브이세종·메가박스세종  
영화 헬로 카봇 24일 상영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맘스 위드 무비’ 9월 행사로 오는 24일 씨지브이세종(충춘동)과 메가박스세종(조치원읍)에서 영화 ‘헬로 카봇’을 상영한다.

맘스 위드 무비는 아기와 엄마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최신 개봉작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육아맘들의 힐링 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맘스 위드 무비는 세종시가 씨지브이세종, 메가박스세종과 함께 추진하는 시청 3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세종’으로 매월 마지막 주요일인 진행된다.

올해 여덟 번째로 진행되는 9월 맘스 위드 무비 프로그램 상영작은 시민들과 영화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영작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헬로카봇’이 선정됐다.

‘헬로카봇’은 ‘지구와 달을 구하기 위해 외계인들과 맞서 싸우는 주인공 차탄과 카봇들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아이 동반여부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20일까지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na.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하면 가능하다.

이번 맘스 위드 무비 상영은 오는 24일 씨지브이세종에서 오전 10시부터, 메가박스 세종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영화관에서 예매 여부를 확인 후 표를 발급받아 입장하면 된다.

맘스 위드 무비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관계팀(☎ 070-4239-6486, 651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축산물 부정유통 차단  
쇠고기이력제 홍보 강화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윤창희)가 식육포장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쇠고기이력제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쇠고기이력제 홍보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쇠고기이력 정보 관리실대를 검증하기 위해 상시 실시 중인 유통단계 쇠고기 DNA 동일성검사에서 개체이력 불일치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실시된다.

쇠고기 DNA 동일성검사는 유전자 분석기법을 이용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동시 진행하게 되며, 등급이 낮은 한우고기와 혼합해 고가의 한우등급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 등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 개체이력 불일치 건수는 지난 2017년 1건에서 2018년 16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총 8건이 확인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러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축산

농가, 관련업체,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홍보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 리플릿은 ‘쇠고기이력제 정확히 알고 실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쇠고기 DNA 동일성검사와 개체이력 불일치 주요 사례 및 예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이와 함께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6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연합회를 열고 선진기술을 공유했으며 DNA동일성 검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가동하기로 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DNA 동일성 검사에서 개체이력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DNA동일성 검사와 유통단계 축산물업체 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건강도시 선포식 및 건강한마당 행사

## 예산군, 오는 24일 개최

예산군은 오는 24일 윤봉길체육관에서 건강도시 선포식 및 건강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도시 선포식은 군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양진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로부터 가입인증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현관식과 선포식, 건강한 노인 선발대회, 자살예방 생명사랑·치매파트너 다짐 결의, 건강정보 체험관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건강정보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건강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몸과 건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건강한 노인 선발대회 예선을 거친 어르신들이 건강검진 결과 점수와 체력테스트를 통해 노년 건강의 우열을 가리는 본선 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2003년 10월 설립된 WHO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노력

에 기반을 두는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도시 국제네트워크’로, 2019년 현재 9개국 189개 도시가 가입했으며, 국내에서는 92개의 도시가 가입돼 있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 사회,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군은 연맹 가입승인을 위해 현황분석을 통한 건강도시 프로파일 작성과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분석, 정책기술 등 자료를 제출해 정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바 있으며, 오는 2020년 홍콩에서 열리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에서 가입 인증패를 받게 된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계기로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개념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 건강도시 예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조성 가속도 붙는다

##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조성사업 적기 추진 기대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아이들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교부한다.

지자체가 대상사업 검토 후 타당성 등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 행정안전부가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검토해 교부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자치단체 간 행정성 등을 고려해 교부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이번에 세종시 모두의 놀이터 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면서 조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고운동을 시작으로 모두의 놀이터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세종시 전체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춘희 시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간 소통과 공감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는 현재 시민과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 세부 구상안을 마련 중인 상태로, 시는 앞으로 실시계획을 거쳐 내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 “제5회 세종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놀러오세요”

## 22일 개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2일 연동면 소재 미래엔 교과서박물관 운동장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제5회 세종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시가 주최하고 세종시수의사회와 ㈜문화기획 그룹 이상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문화교실 ▲동물사랑 사생대회 ▲반려견 에티켓 대회 ▲어린이 수의사 체험교실 등이 진행된다.

특히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설계현 수의사를 초청, 반려동물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반려동물의 상태와 건강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특히 설계현 수의사는 교육방송(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 중인 동물행동교정 전문가로, 이번 강연으로 잘못된 행동들로 인한 반려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상담, 광견병 백신 접종, 진드기매개질환 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며, 세종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사랑 사생대회와 수의사 일일체험 부스 등도 마련된다.

이밖에 전국 디스크북 대회, 탐지견 시범, 어질리티 시범, 버스킹 공연 등의 볼거리와, 반려동물 상식퀴즈, 에티켓 대회, 반려가족 장기자랑 등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김태선 기자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세종반려동물 문화축제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걸맞은 성숙된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려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우/리/동/네



천안시 부성2동 행복키움지원단

## 3분기 간담회 개최

충남 천안시 부성2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임상선)은 17일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3분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 복지정책과 행복키움지원팀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후 지원단은 행복돌봄비 일대일 결연 사업 활성화를 논의하며 원활한 추진을 다짐했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변 원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어려운 우리 이웃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다.

윤석기 부성2동장은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 참석에 이어 캠페인까지 펼쳐주신 우리 단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부성2동 행복키움지원단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성2동 행복키움지원단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 발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이정복기자

##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햇불' 선보여

## 천안시·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제작한 14분 분량의 2D 디지털 애니메이션

충남 천안시는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햇불'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햇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천안시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제작한 14분 분량의 2D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다. 충남에 소재한 위크리에이티브(대표 박현우)가 연출했다.

애니메이션 줄거리는 3·1운동 후 서대문 감옥에서 유관순을 만난 조선인 간수가 유관순 열사의 항일 독립의지와 옥중 만세운동을 지켜보며 변화해가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햇불'은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해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 변형 및 2차 저작물 제작이 가능하다.



유튜브(www.youtube.com) 검색창에서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햇불' (https://youtube/H42k30xJwZ4)을 검색하면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천안시 홈페이지 미디어소통센터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시는 다가오는 유관순 열사 순국 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유관순 열사에게 댓글로 편지쓰기 등의 소셜 미디어(SNS) 이벤트를 진행해 애니메이션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한 천안시 마스코트 '나랑이'

캐릭터 상품 등이 제공된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총괄한 배영철 본부장은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을 알리기 위해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게 됐다"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용도로 활용하기에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동순 문화관광과장은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천안시는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쳤다"며, "유관순 애니메이션 사례와 같이 시에서 제작한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동 정

9월 정기 월례회의



구본영 천안시장= 18일 오전 11시 신라스테이 천안에서 열리는 천안발전회 9월 정기 월례회의에 참석.

교통안전 캠페인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8일 오전 7시50분 천안구성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천안동남녹색어머니회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석한 뒤, 오전 10시 온조묘(직산향교)에서 열리는 백제건국시조 온조대왕 승모제에 참석.

천안역 서부역 제2주차장 9월말

운영 종료...시민불편 양해 당부



'선배공직자 리더십 노하우'라는 주제로 이성규 전(前)경제산업실장이 특강을 펼쳤으며, '리더십-조직이 원하는 역할인식' 강의 등도 이어졌다.

구본영 시장은 "공직 내 세대 간

갈등에서 소통자 역할은 물론 시정의 방향과 목표를 실천하는데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의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천안시, 아동관련 기관 업무 협약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사단법인 미래를 여는 아이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는 16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3개 아동관련 NGO인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사단법인 미래를 여는 아이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와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본영 시장,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신변수 본부장, 사단법인 미래를 여는 아이들 서미정 사무국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박석란 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아동의 권리 증진 등 아동관련 사업 협력 ▲독립적 지위에서 아동 관련 정책 사업 모니터링과 전문적 조언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상호협력하고 나아가 시민 모두의 참여로 아동이 행복하고 시민 모두

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본영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아동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적극적 노력과 상호 협력으로 아동 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자"며 "천안시 모든 아동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관련 NGO 관계자는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아동 복지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천안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3월부터 아동실태조사를 시작했으며, 6월에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8월에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조직했다. 또 4월부터 시공무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과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식, 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서부역공영주차장 2개소 중 성정지구에 맞은편에 위치한 서부역 제2주차장(서부광장)이 이달 30일자로 운영이 종료된다.

시설관리공단은 천안역세권 뉴딜사업인 '스마트도시 플랫폼' 건설 사업이 10월 중 착공됨에 따라 제2주차장의 운영을 종료하며, 종료된 이후에는 제1주차장(지구대 앞)만 이용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1주차장은 주차면 수 70면으로 하루 평균 400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정기권 운영을 하지 않아 일일주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원식 이사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로 인해 시민들께서 당분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더 나은 천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주차장 운영 종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교통환경부 교통상기팀(041-529-5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봉명초등학교, 어울림

현장체험학습 실시

충남 천안봉명초등학교(교장 김현순)는 17일 1학년부터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울림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년별로 실시한 이번 어울림 현장체험학습은 각 학년의 특색에 맞추어 다양한 지역과 시설을 방문했다.

1학년은 부여 땅 자연 미술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아이들의 생각으로 꾸민 놀이 미술관과 연필꽃이 만들기 등 놀이를 통한 어울림 활동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학년은 공주 이안 숲속을 방문하여 허브정원, 단풍 나무 길 등을 관람하며 학생들의 오감체험을 통해 자연과 유대감을 갖고 자연사랑의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3학년과 4학년은 용인 한국민속촌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전통놀이를 즐기고 천연염색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5학년은 국립 과천과학관을 방문하여 과학의 각 분야의 기초적인 내용을 몸으로 체험하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과학의 다양한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대전 이색카페 | 상담카페  
당신을 위한 진정한 힐링



성향검사, 적성검사 만나보세요!

NAVER

"힐링문화카페 씬"



예약문의



070.8804.1234



@cafeshuim



대전 중구 중앙로 170번길 28, 3층  
은행동 와와온 3층



월화목금 10:00 ~ 22:00  
일요일 15:00 ~ 22:00  
수요일 : 휴무





**대전시농업기술센터, 약초가공 전문가 육성 노력**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16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대전 농산물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약초가공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촌자원의 생산·가공·체험관광을 연계하기 위해 ▲약초의 법제 기초이론 ▲쌍화탕, 경옥고, 공진단 등 약용자원 가공실습을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됐다.



**아산소방서, 비화재보 문제개선 긴급회 실시**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17일, 비화재보 출동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자 비화재보 다수 출동대상처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비화재보만 소방시설은 정상 작동하나, 화재가 아닌데 화재로 인식해 감지기 등이 작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양소방서, 칠갑산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청양군의용소방대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칠갑산일원에서 안전한 등산문화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등산목안전지킴이를운영한다.



**대전·충남병무청,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현장 체험및 전시임무교육**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정복양)은 17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시, 아산시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시 병무행정 및 지자체 수행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실시**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관공서 민원실과 농협 등 이용객이 많은 곳에 미니메너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철도공단·코레일 노·사 합동 ‘철도시설물 개선 현장 점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17일 황간역 황간시설관리반(총북 영동준 황간면 소재)에서 양기관 노·사가 모여 철도시설물개선을 위한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제대로 안지켜”

## 한국소비자원, 계약서에 횡수제·기간제, 환급 기준 명확히 기재해야

건전한 결혼중개업 육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업자의 법규 미준수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국내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최근 3년 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도 계약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2018년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20.0%)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제공방법

만 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체(75.0%)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회비를 알 수 있었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수수료·회비’나 ‘서비스 제공방법(횡수제/기간제)’, ‘환급기준’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기재해 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충남경찰청,사이버범죄

예방 홍보온라인 이벤트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9월 사이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페이스북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관심과 범죄 예방을 위한 릴레이퀴즈 이벤트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초성퀴즈를 SNS에 게시, 댓글 정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품 수를 가졌다.

이번 릴레이퀴즈 이벤트에는 총 8천741명이 조회해 1천71명이 댓글로 참여했고, 댓글 정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5명을 선발하여 키보드, USB 등 다양한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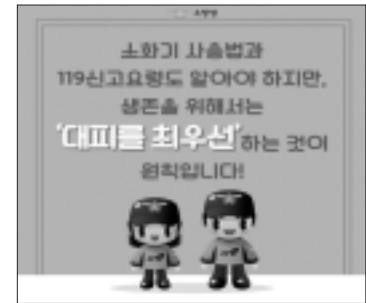
앞으로도, 충남경찰청에서는 인터넷사기·메신저피싱 등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홍보포스터(카드뉴스 등)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홍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daejeontoday.com

## 태안소방서 ‘불나면 대피먼저’ 당부

안전 의식 전환 집중 홍보 실시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 시 신속한대피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불나면 대피먼저’ 안전 의식 전환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화재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피 가능 시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져 화염보다 직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각종 훈련 및 캠페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대피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피 방법은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하며, 피난계단을 통해서 1층 및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된다.

최종은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발생 시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 대피이며, 평소 대피 방법을 숙지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현기자

## 행복한 직원모임 ‘119소통의 날’ 운영

보령소방서, 함성에듀케이션 정희정 센터장 초청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본서 3층 대강당에서 ‘119소통의 날’이라는 주제로 행복한 직원모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임에는 소방장 이희태, 소방교 김주룡, 소방교 공평화 구급대원 3명에게 브레인세이버를 수여하고 함성에듀케이션 정희정 센터장을 초청해 ‘반칙과 특권없는 청렴한 조직 만들기’ 특강과 청탁금지법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브레인 세이버란 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이송

해 뇌기능 손상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부터 소방청에서 브레인 세이버, 트라우마 세이버(중증외상), 하트 세이버(심정지) 등 3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근제 서장은 “119소통의 날을 마련해 직장 선배들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따뜻한 직장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 충남대 ‘2019년 백마대동제’ 개최



충남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는 9월 18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덕캠퍼스입원에서 ‘2019년 백마대동제’를 개최한다.

이번 백마대동제는 충남대 재

학생과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과 모두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3일간 학생들이 직접 기획, 참여한 학생 부스와 기업 부스, 푸드 트럭, 북페스티벌, 포토존, 플리마켓, 동아리발달 등이 진행되며, 버스킹, 상설가요제, 연애인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어진다.

한편, 백마대동제 첫째 날인 18일, 개회식에서 앞서 충남대 재학생들의 지역사회 혁신 교육프로그램 발대식이 개최된다.

이정복기자

## 도로 위 ‘킵라니’주의보…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급증

PM사고,2017년 117건→2018년 225건으로 급증

최근 전동킵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이하 PM)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킵라니(킵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 실제 PM사고가 1년 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PM사고는 경찰청이 전산관리를 시작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1년 사이에 1.9배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PM 단독’ 사고는 2017년 26건, 2018년 2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PM대 사람’ 사고는 33건에서 61건으로 1.8배 증가했고 ‘PM대차’ 사고는 58건에서 141건으로 2.4배나 급격히 증가했다.

PM사고가 늘면서 이에 따른 인명피해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M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17년 총 128명(사망 4명, 부상 124명)에서 2018년 242명(사망 4명, 부상 238명)으로 1.8배 증가했다. 이중 특히 ‘PM대 사람’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38명(부상

38명에서 65명(사망 1명, 부상 64명)으로 1.7배가 늘었고, ‘PM대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64명(사망 1명, 부상 63명)에서 154명(사망 1명, 부상 153명)으로 2.4배 가량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PM사고의 빈도와 인명피해 규모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나 주행규정 등 PM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루 빨리 마련되고, 신호·차량호출 등 제대로 된 PM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 당진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행정력 집중

긴급 방역 돌입…지역 유입 차단위해 농가 예찰 강화



당진시는 17일 새벽 6시 30분 농림축산 식품부가 파주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내림에 따라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가 감염될 경우 발열이나 전신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사율 100%에 가까운 제1종 법정전염병이지만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오염된 육류의 경우 매우 위험한 감염원이기 때문에 확산 차

단의 쉽지 않다.

당진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상륙과 동시에 비상 방역체제에 돌입한 이유는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 외에도 당진 지역이 충남에서 홍성 다음으로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도내 2위 규모의 축산지역이자 경기도와 가까운 충남 서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현재 관련 부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비상대책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으며, 시의 지역에서 시내 지역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농가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지역 양돈농가에도 종사자와 차량, 물품에 대한 이동중지법 명령하고 관계자들의 각종 모임이나 각종 교육 참석을 자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18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모바일로 예약하세요”

세종시, 전용 호출·모바일 예약 개시…내달 중 콜택시 3대 추가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18일부터 장애인 콜택시(세종누리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http://hnicall.sect.kr) 및 모바일을 통한예약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장애인 콜택시 모바일 예약서비스는 그동안이용자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된 예약수단 다양화의 한 방편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기존 전화와 문자 외에 추가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도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장애인 콜택시(누리콜)를 예약하려면 전용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세종누리콜’을 통해 접속한 후이용시간대를 정해 예약하면 된다.

장애인 콜택시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종 1~3급)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 세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899-9042에 등록한 후이용할 수 있다.

세종=김태선기자

이용요금은 3km까지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며, 이용자수는 월간 3,000명 선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시는 예약시스템 개편 관련 사전홍보를 위해 지난 8월말 모바일 앱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중 추가적인 설명회와 함께 안내 팸플릿 등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입차택시 3대를 포함해 총 1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내달 중 2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 “기업 2곳 중 1곳, 채용 시 학벌 본다”

## <사람인> 조사결과 ... 가장 선호하는 학교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기업 2곳 중 1곳은 채용 평가 시 학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337개사를 대상으로 ‘좋은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8.1%가 ‘좋은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지원자가 노력한 성과여서’ (51.9%,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벌에 따른 역량 차이가 있어서’ (43.2%), ‘객관성이 있는 조건이어서’ (37.7%), ‘기준에 채용 시 만족도가 높아서’ (11.7%), ‘활용 가능한 인맥이 많아

서’ (9.3%) 등을 들었다.

가장 선호하는 지원자의 출신 학교로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 (45.7%)을 꼽았다. 이어 ‘지방 거점 국립대학’ (24.1%), ‘상위 10위권 내 명문대학’ (19.1%), ‘일명 스카이 대학(서울/연세/고려대)’ (3.1%) 등의 순이었다.

선호하는 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 중 ‘지원자를 더 꼼꼼히 평가한다’는 응답이 66.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전형 진행 시 우선순위로 선정’ (20.4%), ‘가산점 부여’ (18.5%)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채용 평가 비중에서는 평균 약 32%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기업 10곳 중 2곳(21%)은 다른 자격조건이 모자라도 학벌이 우수해

채용한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학벌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들(175개사)은 그 이유로 압도적으로 많은 90.9%(복수응답)가 ‘업무 능력과 크게 연관이 없어서’를 들었다. 이밖에 ‘기준 채용 시 만족도가 낮아서’ (10.9%), ‘경영진의 방침이어서’ (5.1%), ‘기존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서’ (4.6%) 등의 답변이 있었다.

그렇다면, 일선 기업들은 직원들의 학벌과 업무 능력 간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체 기업의 593%는 근무 중인 직원들의 ‘학벌과 업무 능력 간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며, 24.6%는 ‘학벌이 좋으면 업무 능력도 뛰어나다’고 답했다. 16%는 인사관리 프로세스 상 직원들의

학벌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의 경우도 ‘상관관계가 있다’ (45.7%)와 ‘상관관계가 없다’ (43.8%)는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이 좋은 신입사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의 62.6%가 ‘차이 없다’고 답했다. 30%는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7.4%는 ‘오히려 만족도가 낮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기업들의 과반수인 55.2%는 과거에 비해 좋은 학벌이 채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40.4%는 ‘줄었다’고 밝혔으며, 4.5%는 ‘늘었다’고 응답했다. 이정복기자

## 충남교육청, 미래와 교육 위한 토론의 장

교육정책연구소 ‘혁신학교 지속과 미래’ · ‘역사교육’ 포럼 개최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원장 고미영) 교육정책연구소는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지속과 미래 연구, 동아시아 공존과 평화에 관한 역사교육 포럼을 10월 1일과 8일에 각각 충남교육청 대강당과 연구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미래와 교육을 위한 도전 그리고 실천’을 큰 주제로 ‘다시, 혁신학교를 생각하다’와 ‘지금 여기, 역사

교육을 생각하다’ 포럼을 각각 운영하게 된다.

혁신학교 지속과 미래 강연은 전 교육부 정책실장 이종현 강사가, 정책연구 중간 보고는 교육정책연구소 박진환 연구원이 진행하고, 경기 양평 서종초 김영주 교장, 전북 오송중 정현영 교사, 충남교육청교육연구센터 장군 교육연구사, 홍동중 민병성 교장, 고덕중 이정순 교장, 아산송남초 김구현 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역사교육 주제 발표는 성균관대 동아시아사연구교수 이신철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은 공주대 송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도 인창초 석병배 교사, 당진 중 안광진 교사, 예산여고 한성준 교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연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충남교육 미래 대비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기반 정책연구를 지속해서 해나갈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내 고장 학교 다니기 활성화 등교맞이 캠페인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Wee센터는 “오늘너의 하루를 응원해” 내 고장학교 다니기 활성화 캠페인을 1일 서면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생명 존중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도 동시에 실시했다.



운곡초, 2019 놀이·음악치료를 통한 마음튼튼 프로그램 운영 운곡초등학교(교장 이택현)는 지난 16일부터 매주 4회(7)에 걸쳐 2학년 및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마음튼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양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아 외부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심리치료 교육활동이다.



보령 미산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보령 미산초등학교(교장 박운제)는 16일 3,4교시에 시청각실에서 1~3학년과 4~6학년으로 나누어 ‘보령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강사의 지도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대처능력 함양을 통해 건강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 독서지도 학부모 특강 운영 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관장 김명심)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아이의 독서 습관 형성에 고민이 많은 부모들을 위하여 17일 오전 10시부터 고갑주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지도 학부모 특강’을 운영했다.

## 세종시교육청,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현장체험연수 운영

각급학교 학부모회 임원 40명 대상



세종시교육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전라남도 여수 일원에서 각급학교 학부모회 임원 40명을 대상으로 '2019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

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세종시 학교의 학부모회 구성원들이 생활권별로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권역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학부모회장연합회(회장 김경희)와 함께 한 이번 연수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 교육지원 우수사례 탐방 ▲학교와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강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협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학부모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의 '여수 혁신지구 학부모 모임'의 사례를 탐방하고,

독도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여수학부모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학부모 해설

사로부터 사례발표를 듣고 직접 체험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5개 권역별로 나누어 학부모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교육공동체를 이끌어가는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의사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이번 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권역별 네트워크의 구성과 활성화 모색 등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난안전관리 비상연락체계 점검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위한 대비 만전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재난관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비상연락체계 작동이 미흡할 경우 초동대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비상연락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

여 점검하고 있다.

재난관리 비상연락체계 점검은 지난 4월부터 매월 안전점검의 날 이후 15일 이내에 취약시간대인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관내 유·초·중·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매월 10개교 내외를 선정하여 비상연락체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

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초기에는 불시 연락을 했을 경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모든 분들이 전화에 응답하여 취약시간인 늦은 시간에도 비상연락체계에 문제가 없이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 교육장은 “요즘 우리 주변에 화재, 태풍 등 재난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산=김성구기자

## 대전과기대, 2020 대전·충청·세종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참가

수험생들에게 수시 입학정보 제공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효인)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대전 시청(2층도비)에서 개최되는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 수험생들에게 수시 입학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로부터 혁신지원사업, LINC+사업, 후진학년도형사업 ‘3관왕’을 한 대전과기대는 이번 입학정보 박람회에서

다양한 학과 정보제공과 전문직업인 양성 커리큘럼 등 취업전망이 밝은 다양한 학과의 미래 직업을 설명하고, NCS(국가 직무표준) 기반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의 위상을 제시, 수험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제시하며, 특히, 진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해당 학과 교수들이 직접 심도 깊은 상담을 하고, NCS를 기반으로 한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능력과 취업 연계성을 수험생들에게 인식시킬 계획

이다.

이효인 총장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입시상담부터 교육, 진로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0학년도 대전·충청·세종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는 총 19개 전문대학이 참가하며, 오는 9월 27일(금)까지 수시1차 접수 마감을 한다.

김정환기자

## 아산시, 꿈꾸는 장난감도서관 & 놀이터 ‘인기 만점’

아산시가 굿네이버스 온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 운영



아산시 아이들이 꿈꾸는 장난감 도서관&놀이터에서 장난감도 빌리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 수 있어 인기 만점이다.

다.

꿈꾸는 장난감도서관 & 놀이터는 아산시가 굿네이버스 온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 아산시 배방읍에서 운영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장난감 구매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400여 명의 회원이 연 회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장난감 1,000여 점과 카시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 개관 이후 회원이 꾸준히 증가해 누적 회원 2,600세대가 이용했으며 만족도가 높다.

또 꿈꾸는 놀이터는 친환경 인테리어와 400여점의 장난감과 모래놀이터, 도서영역, 역할놀이를 위한 2층집 등 영역별로 구분돼 외부활동을 원하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많은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영아를 위한 바운서, 걸음마 보조기, 점퍼루 등 다양한 장난감이 구비돼 있고 위생 청결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 개인 이용자들도 이용이 많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꿈꾸는 장난감 도서관 & 놀이터 홈페이지(www.aantoy-playor.kr) 확인 또는 전화 장난감도서관(533-4644), 놀이터 533-4645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 아산시중앙도서관, 가을

학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아산시중앙도서관은 가을학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오는 9월 2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설강좌는 ▲유튜버 도전! ▲아이패드 1000% 활용 앱 강좌 ▲도서관에서 배우는 핸드드립 ▲책과 함께하는 미술심리 ▲컬러테라피 색채심리치유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하루 한 가지 유아토탈공예 등이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콘텐츠 제작에 기본적인 원리와 편집을 배워보며 1인 크리에이터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유튜브 도전강좌는 유튜브 채널 ‘리오파고’를 운영하는 박준홍 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이패드 기기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배워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접수는 9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ascl.asa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독서진흥팀(041-530-6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 천안교육지원청,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 수업성장 연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정신)은 9월1일자 발령 신규교사 및 3년 미만의 저경력교사 등 57명을 대상으로 청 내에서 3회(9월17일, 9월19일, 9월24일)에 걸쳐 ‘2019년 학생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수업성장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 설계와 참학력 신장, 학생성장발달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천안의 초·중·고교교사로 구성된 수업혁신 장학지원단은 ▲하브루타를 적용한 국어수업 ▲은 책 읽기와 교육 연극을 통합한 국어수업 ▲창의·인성을 기르는 독후활동 기법 ▲PDC로 수업·하기 등 4가지 주제의 수업시연과 주제연수를 실시한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은 신규·저경력 교사들의 수업성장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수업코칭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석교사와 새내기 교사가 함께하는 멘토·멘티 릴레이 수업공개가 예정돼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 석유화학 기초원료 에틸렌 생산시설 증설 완료

한화토탈, 설비 5400억원 투자... 연간 에틸렌 31만톤 · 프로필렌 13만톤 추가 생산 가능

한화토탈은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충남 대산공장 에틸렌 생산 시설 증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상업가동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토탈은 2017년 4월부터 약 29개월간 투자비5400억원, 연인원 60만명을 투입하여 연간 에틸렌 31만톤, 프로필렌 13만톤 생산규모의 가스 전용 분해시설(NCC Side Cracker)을 완공했다. 이에 따라 한화토탈은 연간 에틸렌 140만톤, 프로필렌 106만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에틸렌,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초원료다. 한화토탈은 이번 증설로 연매출 5900억원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증설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 나프타 원료 기반의 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 확대가 아닌 '가스 전용 분해시설을 통한 생산 확대'라는 점이다. 한화토탈의 가스 전용 분해시설은 기존 나프타 대비 가격이 낮은 프로판 가스(LPG)를 원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NCC와 연결해 스팀, 전기, 용수 등 생산 인프라를 공유하는 설계 최적화로 통상적인 NCC 신설 대비 약 25% 투자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성을 극대화 한 설비다. 최근 석유화학시장은 북미 셰일가스 생산 인프라를 공유하는 설계 최적화로 통상적인 NCC 신설 대비 약 25% 투자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성을 극대화 한 설비다.

이번 증설로 규모의 경제와 원가경쟁력 제고로 치열한 경쟁의 파고를 넘는다'는 복안이다. 한화토탈은 올해 연말까지 폴리에틸렌 40만톤, 2021년초 완료를 목표로 에틸렌 15만톤, 프로필렌 4만톤, 폴리프로필렌 40만톤 증설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완공한 가스 전용 분해시설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 1조4300억원이 투자되며, 공사기간 중 투입되는 건설인력 규모도 연인원 120만명에 달한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증설이 완료되면 합성수지 사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생산 구조를 고부가 제품 생산 위주로 재편하여, 기존 국내 최대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스티렌 모너머(SM, Styrene Monomer), 파라자일렌(PX, Paraxylene) 등 기초유분 중심의 주력사업군을 합성수지 사업까지 확장해 경영환경의 변동성에 신속히 대응,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 당진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로 자리 잡았다

재발행 한 달 만에 95% 판매돼 개선했다. 여기에 당진시가 상품권 재발행과 추석명절을 맞아 이달 11일까지를 특별 할인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 액면 가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당초 당진시의 예상보다 빠르게 상품권 판매가 완료됐다. 당진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당진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 일원과 일부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당진시가 올해 '당진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진시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소매·서비스업종으로 사용처가 확대됐다. 특히 당진시는 당진사랑 상품권 재발행에 앞서 취급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인 가맹점 모집 활동으로 추석 전에 당진사랑 상품권 가맹점 1500곳을 모집해 상품권 구입과 사용 편리성을 대폭

당진=최근수기자

## 중소작물보호제판매업체 90% 부가세 환급절차 "불편" 호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문 리서치 기업에 의뢰해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중소기업의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가세 환급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 비중은 '경영체 등록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체등록농민'과 '경영체미등록농민'의 판매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판매상의 거래대상은 농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인에게 농약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를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과 농약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해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중소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며, 환급까지 지급 융통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결과 농약의 농민대상 총 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공주형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공주형 스타트업 육성 등 22개 세부사업 발굴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역 특성과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인 이른바 '공주형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윤부한 여성가족과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주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시작해 청년정책 동향과 국내외 우수사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과 함께 행복한 상생도시, 공주'를 비전으로 ▲창업을 통한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일자리'창업) ▲내실 있는 청년 주거여건 개선(주거'인프라) ▲수요에 기반한 교육·돌봄체계 구축(교육'복지)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문화도시 조성(문화'참여) 등 4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주청년 친화기업 육성 ▲공주형 스타트업 육성 ▲대학생 월세

비용 지원 ▲탐색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청년 서로이웃 축제 ▲니트족 자립프로젝트 등 22개 세부사업을 발굴했다. 시는 올 상반기 공주시 청년정책 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청년네트워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청년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청년정책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부서별 제안된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실효적인 사업을 선정 한 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관내 청년층의 생활실태와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2주간 설문조사(618명) 및 7월 31일부터 3일간 심층면담(20명)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47.7%가 공주 거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33%는 떠날 뜻을 밝혔다. 공주에서 창업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23.8%가 있다고 답했고,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으로는 33%가 보증금과 전세금, 월세금 지원을 꼽았다. 64.7%가 청년정책에 관심을 보였으며, 정책 수요 대상으로는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27.2%,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 25.6% 순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기준 공주시의 청년 인구는 2만 467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1%를 차지하고 있다. 윤부한 여성가족과장은 "시는 올해 청년정책 관련 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번 용역과정에서 도출된 실효적인 사업들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청년들과 함께 행복한 상생도시, 공주' 건설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한타엔테크놀로지 하반기 프로액티브 리더 공개채용

지원자들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미래 혁신을 함께 실현해나갈 주인공을 찾습니다.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대표이사 조현범, 이하 한국타이어)가 16일부터 29일까지 끊임 없는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오토모티브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2019년 하반기 프로액티브 리더를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는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경영지원, 마케팅 직군을 중심으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최첨단연구시설과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갖춘 '한국테크노돔(HANKOOK TECHNODOME)'에서 미래 타이어 기술력을 이끌어 나갈 이공계 인재들과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Top Tier 도약을 견인할 인문계 인재들을 함께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채용기간 동안 회사와 타이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자들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프로액티브 랩 투어(Proactive Lab Tour)'를 마련했다. 한국테크노돔을 견학하며 최첨단 기술 혁신과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로액티브 랩 투어(Proactive Lab Tour)'는 20일과 25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 한 한국타이어 홈페이지(www.hankooktire.com)에서는 지원자들의 직무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직무안내서와 임직원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타이어 연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직무들의 역할과 필요역량, 관련 전공 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 아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2012년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경유 자동차 28,788건, 10억 6000만원 상당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 부담제도이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공해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장석봉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나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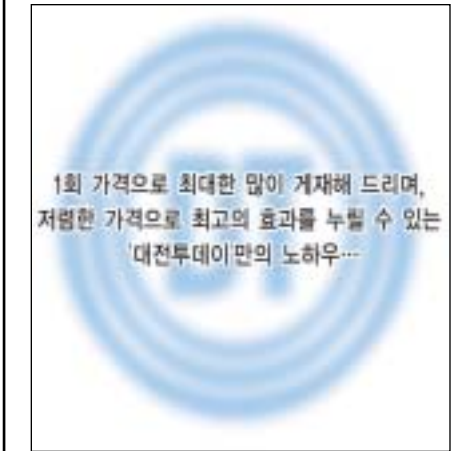
## 가을·겨울 트렌드 컬러 4색 소개

롯데百貨 대전점, 브라운·레드벨벳·딥그린·베이지 등 4색 트렌드 컬러

매 시즌 유행하는 컬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는 F/W 패션 트렌드를 선도할 롯데백화점만의 '2019 F/W 롯데 트렌드 컬러'를 소개한다. '2019 F/W 롯데 트렌드 컬러'는 ▲'가을 감빛 브라운', F/W 시즌 대표 컬러로 오랫동안 회자되어온 브라운 컬러가 오렌지의 젊은 감성이 깃든, 더 영한 감성으로 돌아왔다. ▲'레드벨벳', 더욱 에너지적이고, 건강한 가을과 겨울을 기대하며, 짜릿하고 열정적인 레드의 힘은 여름을 넘어 F/W시즌을 넘본다. ▲'새벽 숲술 딥그린', 친환경과 지속가능함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은 패션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 증거가 바로 자연을 닮은 그린 컬러의 유행이다. ▲'목욕 솜솜 베이지', 추위를 녹이는 햇빛의 따스함처럼

F/W 시즌을 부드럽게 녹여줄 베이지 컬러의 힘, 포근하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 보자는 의미이다. 이 트렌드는 입점 브랜드의 key 컬러 분석과 패션트렌드 전문가 분석, 팬톤 F/W 패션 리포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표적인 4가지 컬러를 선정, 컬러가 연상되는 소재를 활용한 베이밍으로 쉽게 컬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손울정 롯데백화점 대전점장은 "고객이 의류나 화장품을 쇼핑할 때 트렌드 컬러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매장에 관련 고지물을 비치하고 있으며, 상품군 별로 트렌드 컬러를 활용한 가을·겨울의 다양한 스타일 제안과 신상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쇼핑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동정

청소년재단 창립총회



오세현 아산시장은 18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청소년재단 창립총회'에 참석.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김홍장 당진시장은 18일 오전 9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정책토론회를 주재, 오후 1시 당진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김영애 아산시의장은 18일 오후 1시 30분 선문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 아산 진로직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오후 2시 40분 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포럼



가세로 태안군수는 18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3차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포럼'에 참석.

농촌지도자대회



김돈곤 청양군수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 청양군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



온양3동 행복키움9월 월례회의 열려

아산시 온양3동행복키움추진단(단장 홍인순)은 지난 16일, 온양3동 회의실에서 행복키움추진단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정기 사업인 행복나눔 장학금을 관내 저소득 학생 3명에게 전달, 2019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및 소통문화 나눔 한마당에 홍보부스 운영 방안 논의, 그외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의 긴급지원금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아사직전 폐결핵 중구교포 불법채류자) 의료비 및 저소득 주거환경 관련 재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홍인순 단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을 통해 온양3동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는 행복키움추진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은 월례회의 이후 행복키움 두드림 day 실시하여 관내 어려운 가구 후원물품 전달 및 안부확인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와 복지지원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에너지 분권은 주민 요구이자 시대정신”

## 김홍장 당진시장, 토론회서 법·제도 개선방안 발표

“중양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김홍장 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시장은 “현재 지방정부는 에너지를 공급받기만 하고 에너지 설비 입지 선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전력 3법과 모순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중앙 집중형 에너지 산업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조정과 상호협력 기반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전원개발 촉진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송전설비 주변법 개정을 통한 지역 주민 보상법위 확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방 에너지 예산 및 인허가

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 시장은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에너지 관련 중앙부처와 독립 규제기관 신설과 더불어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공급 지역별 할당제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지방정부 참여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그는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전환의 열쇠는 기초지방정부”라며 “현재 산업부에서 진행 중인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체계 혁신방안 연구용역에 기초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역 에너지센터 설치 등 선도적인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부회장 도시로서 중앙정부 정책 제안과 권한 이양 제안 등에 앞장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정책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태안군 ‘명화 속 과학체험전’ 열어

오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전시

태안군이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해 군민들에게 시각예술분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명화 속 과학체험전’을 연다.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시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명화들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높여주는 체험전시회다.

특히 다양한 미술 작품을 자유롭게 만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험해보며, 작품 속에 담겨있는 원근법·점묘법·프랙탈·왜곡·착시 등의 과학적 원리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놀이와 물임 그리고 상상력의 공간’으로 꾸며진 이번 전시 공간은 △여집여집 작각놀이 ‘공간착시’ △반짝반짝 색채이야기 ‘외라와 광학’ △알쏭달쏭 모나리자의 비밀 ‘다빈치와 황금비율’ △뚜벅뚜벅 명화속으로 ‘화가의 원근법’ 등의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명화의 수수께끼를 과학적으로 풀어보자’라는 콘셉트로 진행돼, 온 가족이 다함께 미션을 풀고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과 과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화 속 과학체험전’은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군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60분 이내로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단체관람 시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문화예술과(041-670-5924)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한기자

## 태안군 이달 17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예정



태안군은 이달부터 ‘2019~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이달 17일부터 어린이 2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다음달 15일부터는 어린이 1회·임신부·만60세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군은 올해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4개 보건기관(10월 28일~11월 22일)과 29개 위탁의료기관(10월 15일부터 11월 22일)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무료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

월~만 12세 이하 어린이 ▲만60세~64세(태안군 주소지) 및 만65세 이상 노인 ▲가중 불편자유양원 및 요양병원 이용자) ▲국가유공자(태안군 주소지) ▲기초생활수급자(태안군 주소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를 방문하거나 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41-671-5266, 5365)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한기자

## 아산시중앙도서관 10월 임산부 특별프로그램 운영

아산시중앙도서관은 오는 10월부터 맘임산부) 편한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중립책 태교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임산부와 예비맘을 위한 미술치료(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한뼘한뼘 아이에게 선물하는 바느질수업(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태교마크라메(매달금요일)

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운영내용은 ▲엄마심리특강(12일(토), 오후 2시~4시) ▲행복한 그림책 태교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임산부와 예비맘을 위한 미술치료(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한뼘한뼘 아이에게 선물하는 바느질수업(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태교마크라메(매달금요일)

수업(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이 있다.

접수는 9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asclasn.go.kr>)나 방문 및 전화(041-530-6629)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도서관 사서팀(041-530-6629)로 하면 된다.



## 청양군 칠갑문화제 안전관리계획 심의회 개최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6일 상황실에서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인 제58회 청양군민의 날 기념식 및 제20회 칠갑문화제의 순조로운 개최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장(김기준 청양부군수)과 위원 11명, 소방, 전기, 구조구급,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예상되는 사고발생 요인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위원장은 “행사장 내 부

스별 소화기 비치 철저 등 관람객 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양군은 축제 전날 전기, 가스, 소방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청양=정성범기자



## 치매가족 요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내 아내와 가족을 위한레시피

당진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 가족 중 남성 보호자를 대상으로 요리교실과 자조모임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2회를 맞는 요리교실은 당진지역 여성 치매환자수가 63.2%로, 남성 치매 환자 수(36.8%) 보다 높다는 점에 착안해 센터가 배우자인 남편이 치매 환자를 돌볼때 동시에 가사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요리교실과 자조모임은 이달 6일 개강해 내달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해나루 요리학원에서 진행되는데, 아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레시피 외에도 비슷한 처지의 남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센터는 참여자 간 지지집단 구성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였다.

향후 센터는 이번 요리교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가 있어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당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지방세 체납액 집중 납부기간 운영

청양읍, 방문 독려·급여·예금 압류 실시할 계획

청양읍(읍장 최을락)이 누적 증가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징수독려반을 운영한다.

청양군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청양읍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공매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 및 급여·예금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과 분담직원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자동차세는 1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도 변호관을 영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된다.

최을락 읍장은 “깎박해 지방세를 미납하시는 납세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송악면 새마을운동협의회 추석 봉사활동 귀감

아산시 송악면 새마을운동협의회(회장 김영환, 부녀회장 이정애)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식혜와 포도 등을 전달하고 안마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귀감이 되고 있다.

또, 교통체증으로 힘들어하는 귀성객들을 위한 차 봉사를 실시했다. 귀성객 맞이 차 봉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행하고 있으며 귀성객이 향수를 느끼고 고향을 찾는 기쁨이 증대되도록 손수 준

비한 차와 간식을 귀성객들에게 대접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어 기뻛고, 귀성객들에게 훈훈한 송악

의 정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악면 새마을운동협의회는 며느리 역할 봉사 활동, 꽃동산 조성, 기금 마련을 위한 농작물 재배·수확, 환경정화 활동 등 각종 봉사를 통해 매년 사회활동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열려

추진사항 점검·신규 사업 관련 조례안 규제 심층 논의

계룡시는 17일 오전 상황실에서 2019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교수, 기업인, 시민대표 등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규제 정비, 규제에 신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 의견수렴 등을 심의·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혁위원회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신규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조례 제정안과 주민자치위원 연임 관련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규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들은 2020년 개관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형태, 사업내용, 시설사용 및 사용료, 위탁운영, 수탁자 의무 등의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주민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는지 등 규제 타당성을 심의했다.

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임을 현재 조례에는 제한하지 않아 신규 주민자치위원의 참여가 어렵고 위원회 조직의 경직화가 우려됨에 따라, 다수의 주민참여 및 조직 순환 제고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합법성 등을 논의했다.

구자열 부시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생활 속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논산시 “도로명주소 어렵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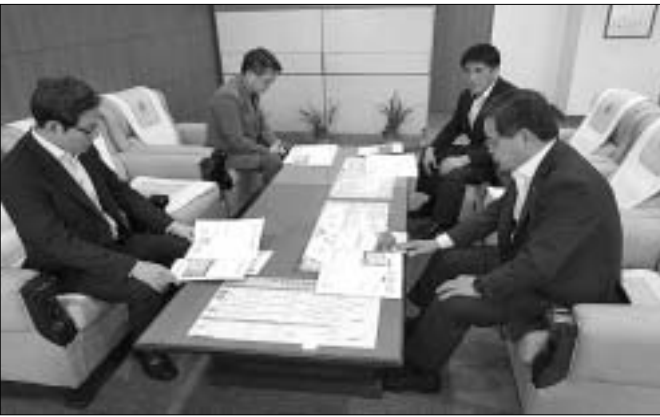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에 나섰다.

도로명주소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은 물론 지난 10일에는 명절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시외버스터미널과 화지시장 등에서 도로명주소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시는 현재 어르신,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 광고 등 매체를 적극 활용해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실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도로명주소를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항공사진, 기초공간정보 등 관련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해 도로명주소가 적시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홈페이지(www.juso.go.kr)와 스마트폰 ‘주소찾아’ 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새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도지도와 새주소팀 (041-746-564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내년도 예산 확보 위해 적극 행보

노박래 군수, 지방이양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적극 건의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 16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김용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장을 만나 지방이양사업 등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정부가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내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서천군 지방이양사업의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노 군수는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 등 총 4개 국을 방문해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 11개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2023년까지 총 2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과 연계해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가족체험형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2억 원 등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산지 위판장 등 산지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및 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한 유통기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13억 원을 요청했다.

노박래 군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이양으로 국비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충남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군사업이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告)합니다

사람 중심 가치로 사람 꽃 피우다, 논산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 고유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7일 논산 돈암서원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유림 및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고유제를 개최했다.

고유제는 서원에 모신 선현(先賢)들에게 큰 경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이번 고유제는 지난 7월 논산의 돈암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됨을 선조들에게 알리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의 서원’은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관료 양성에 중점을 둔 중국의 서원과 달리 성현의 제사와 함께 학문과 시국을 논하며 사대부의 여론을 모으는 광장의 역

할을 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갖고 있다.

또,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양식으로 뛰어난 건축미를 인정받은 것은 물론 조선 후기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증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에 이어 국내에서 1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논산에 위치한 돈암서원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문적 업적 계승을 위해 1634년에 건립된 이후 다수의 명성있는 유학자와 정치가를 배출해낸 것은 물론 조선 후기 성리학의 주류를 이룬 기호유학을 영도하는 위상을 인정받아 명실상부한 기호유학의 본산으로 여겨

진다.

더불어 돈암서원에는 현재 보물 제1569호인 응도당과 사우, 장판각 등의 건물과 하마비, 송덕비와 함께 ‘황강실기’, ‘사계유교’, ‘상례비요’ 등의 서적들이 보존돼 있으며, 특히 응도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원 강당으로, 유교적 고례를 재해석해 완성한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오는 29일 시민들과 함께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한 논산 시민의 날 축하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서원 분원의 기능인 교육·연구활동은 물론 서원의 활성화 위해 한옥마을 및 예학관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논산=김태선기자

## 부여군-SK텔레콤 치매예방 사업협력 MOU 체결

전국 기초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제1호 사업’ 목표 추진

부여군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치매예방 서비스 분야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여군과 SK텔레콤은 17일(화) 오후 4시,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와 유용환 SK텔레콤 SV Innovation센터장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부여군과 SK텔레

콤은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 장애자의 치매 예방과 노인 돌봄을 위한 사업을 SIB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협력하며, 부여군은 사업협력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자문 등을 SK텔레콤에 제공하며, SK텔레콤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을 준비하는 SIB사업은 치매예방서비스에 3년간 총

5억원의 민간투자료 선 사업, 후 예산반영의 SIB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여군은 SK텔레콤과의 MOU 체결로 추진동력을 얻어, 사업을 총괄할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유치해 조달하게 된다.

이후 운영기관의 수행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목표 도달이 상일 경우 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

하게 된다.

부여군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삶과 막대한 사회비용 절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협약식에서 “SIB는 군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라며 “치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 계룡시 폭풍 공감 육아 콘서트 ‘투맘쇼’ 열려

육아스트레스 날리고 힐링의 시간 마련

계룡시는 오는 24일(화) 오전 11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육아에 지친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힐링 코미디 토크쇼 ‘투맘쇼’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가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부모와 아이가 모

두 행복함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 공감 토크쇼 ‘투맘쇼’는 개그우먼 김미려, 김경아, 조승희가 출연해 실제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관객과 함께하는 토크쇼’, ‘폭풍 공감 토크쇼’, ‘관객참여 퀴즈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

모·조부모 등을 비롯한 육아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영유아 동반 입장도 가능하다.

입장권은 공연 당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500명에 한해 현장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정책예산담당관실 인구정책팀(042-840-20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백제문화제에서 백제 왕가의 일원이 되어 보세요

왕과 왕비가 되어 행사장 곳곳을 누비는 백제왕 나들이 이벤트



## 부여군 지역축제 대비 안전관리위원회 열려

제43회 부여군민체육대회·제65회 백제문화제 안전 최우선

부여군은 2019. 9. 17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박정현 군수(위원장)를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군민체육대회와 백제문화제 담당부

서로부터 행사 계획의 적정성, 종합대책 수행 조직 구성·운영 사항, 위기상황 발생 시 조치 계획, 기타 행사장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대책 전반 등에 대비한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세부사항을 점검하였다.

43회 부여군민체육대회는 개·폐회식 안전관리, 경기장, 주차장 등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제65회 백제문화제는 개막식과 개막축하공연, 폐막행사장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대책 전반 등에 대비한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세부사항을 점검하였다.

장비 비롯한 행사장 주요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하였다.

위원장인 박정현 부여군수는 “안전사고는 늘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행사장 주변의 위험요소가 될 만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부여=김성구기자

통 정

국제포럼



황명선 논산시장은 18일 오전 10시 세종 정부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충청유교 국제포럼에

참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노박래 서천군수는 18일 오전 10시 서천군 보건소에서 열리는 2019년 건강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에 참석, 오후 2시 서천 문예의 전당에서 열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석.

종합평가회



박정현 부여군수는 18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혁신교육관에서 열리는 식량작물 종합평가회에 참석.



서천군 레포츠공원에 수영장건립 확정

워킹홀·유아돌 갖춘 ‘생활체육관’ 개설

서천군민들의 숙원이었던 대규모 수영장이 레포츠공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0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생활센터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서천 레포츠공원에 50m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건축할 계획이다.

현재 서천군 장항읍에 학생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협소로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최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학생 대상 생존 수영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도 지장을 받는 실정이다.

앞으로 레포츠공원에 수영장이 만들어진다면 학생수영장은 온전히 유소년 수영 공간으로 사용하고 새 수영장은 일반인과 장애인 체육시설로 활용될 전망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체육 복지 향상은 물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 지대한 역할이 기대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종합운동장 인근으로 공도장을 이전하고 옛날 서림정 부지에 수영장을 짓기 위한 공모사업에 도전, 삼수 끝에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지방비 9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20억 원을 들여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수영장과 워킹홀과 영유아돌을 비롯해 헬스센터, 건강관리실 등이 포함된 ‘서천 생활체육관’을 2022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군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확산되고 있어 서천수영장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기산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기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사가 겹쳤다”며 “서천교육청과 협력해 체육관을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동 정

### 지역사회 정책심포지엄



김정섭 공주시장= 18일 오후 2시 30분 공주대학교에서 열리는 균형발전 지역사회 정책심포지엄에 참석.

###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의 날



김동일 보령시장= 18일 오전 7시 가솔저수지에서 열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의 날, 오전 11시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9회 임시회개회 참석.

###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문정우금산군수= 18일 오전 11시 다락원 생명의 집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 보령 유아예술축제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18일 오전 10시에 웨스토파에서 열리는 보령 유아예술축제에 참석.

### 서산시 보건소, 조개젓 전수조사 실시

서산시보건소가 A형간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고, 관내에서 생산 중인 조개젓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2019년 A형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이 조개젓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시 보건소는 관내 7개 제조업소의 9개 제품을 수거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된 제품은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할 계획이다.

서산시의 2019년 A형간염 신고 건수는 80명('19.9.16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36명 대비 약 2.2배 증가했고, 30~5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7.5%(62명)를 차지했다.

시 보건소는 그동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조개젓에 대해서는 판매 및 유통을 중지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A형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A형간염 안전성 확인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조개류 익혀먹기 ▲요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물 마시기 ▲채소나 과일 등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A형간염 예방접종 등을 당부했다.

서산=김정한기자



### 광고문의

(042)538-3030

# 공주시청 '신바람 북카페' 21일 개관

## 1400여 권 신간도서 비치, 열린 소통공간 탈바꿈... 주말·휴일도 무료 운영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오는 21일 시청 로비에 조성된 '신바람 북카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6월 25일부터 2개월여 동안 조성해 온 '신바람 북카페'가 지난 8월 31일 완공됨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3시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관하는 '신바람 북카페'는 밝고 아늑한 분위기로 조성한 300㎡의 면적에 1400여 권의 신간도서가 비치됐으며, 서가 설치와 함께 인터넷 사용대, 도서 검색대 및 반납대, 민원 안내대 등이 마련됐다.

특히 북카페 천정에는 백제의 고도 공주를 상징하는 무령왕비 은팔찌 조형물과 무령왕릉 출토 거울 장식을 모티브로 한 호랑이와 사



슴, 활 쏘는 사람 등 120개의 조각품으로 구성된 모빌이 설치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작품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갖췄으며 냉

난방 시설을 설치해 기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열리는 개관식은 역사소설 '광개토대왕'으로 유명한 손정미

작가를 초청, 역사학자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와 생동감 있는 북콘서트 및 작가 사인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문인을 비롯해 일반시민과 문화동아리 회원, 어머니 독서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신바람 북카페'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무료로 운영된다.

이성열 회계과장은 "‘신바람 북카페’를 ‘열린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각종 전시회는 물론 시 낭송회와 작은 음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북카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금산군 치매공공후견인제 정착 총력

### "치매어르신들 재산관리·인권 보호 안전망 될 것"

만일 치매에 걸렸는데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나의 경제적, 법적 권리는 누가 책임져주나?

금산군은 2018년 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의사결정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내 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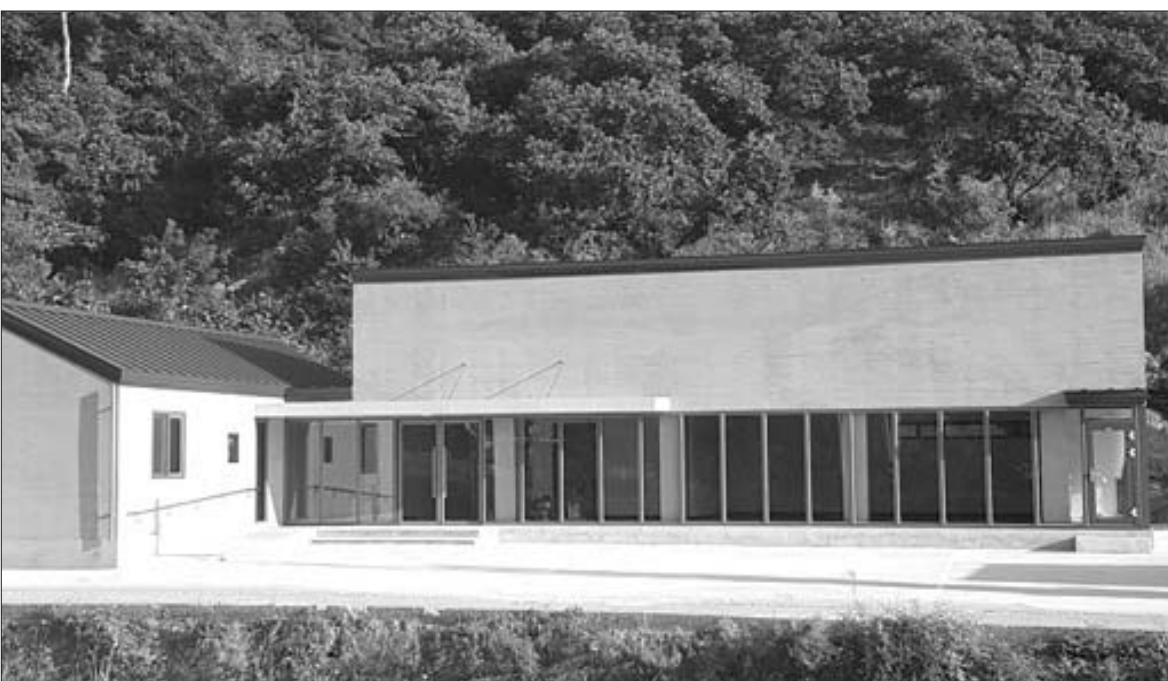
공공후견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로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공공후견(특정후견)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진료, 약처방 등 의로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화영 보건소장은 "이번에 시행될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들의 재산관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보건소는 공공후견이 필요한 주민이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을 원하시는 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는 금산군치매안심센터(041-750-4171)으로 하면 된다.

금산=주연기기자



##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건립... 보존·관리 탄력

### 박동진판소리 전수관에 이어 두 번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유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도 지정 제45호 무형문화재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계승·발전을 위한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이 마무리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문화재청 국비 보조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은 총 사업비 7억 원이 투입돼 지난 3월 준공됐으며 다음 달 1일 정식 개관한다.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일원에 위치한 전수교육관은 연습실과 자

료관, 사무실 등 연면적 2616㎡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됐다.

전수교육관 운영은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5호 보유단체인 '의당집터다지기 보존회'가 선정돼 의당집터다지기 보존 및 전승 활동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의당집터다지기 전승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연습활동을 실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공개강좌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11월 1일에는 공식 개소식 행사를 겸한 공주시 무형문화재 자료 전시회를 개최해 지역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65회 백제문화재 개막 당일인 오는 28일에는 금강미르섬에서 공주의당집터다지기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의당집터다지기'는 의당면 지역에서 15세기경부터 목조주택을 신축할 때 주춧돌을 놓아 기둥을 세우는 건축 양식이 시작되면 서 집의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시작된 전통 민속 행사이다.

이번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건립으로 공주는 지난 1998년 박동진판소리 전수관에 이어 두 번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보유하게 됐다.

김정섭 시장은 "공연 연습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수교육관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토 문화에 관심을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 우리/동네

## 보령시 재가 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사업 접수

보령시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19년 재가 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강원랜드북지재단과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폐광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재해자들에게 월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16일 현재 보령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재가 진폐재해자로 ▲장해 1~13급의 재가 환자 ▲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탄광 근로자에 한함) 판정자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요양(통원)판정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 등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대상자는 강원랜드북지재단에서 자격 등을 검증해 선정하며, 월동지원비는 1인당 40만 원을 오는 10월 31일 대상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보령에서 543명이 지원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930-3354) 및 진폐재해자협회 보령시지부(☎932-3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김정미 기자



## 서산시 유관기관 드론 업무협약 체결

### 시민 사회안전망 강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로 상황 신속대응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합기선 한서대학교 총장, 조성복 서산경찰서장, 김원근 서산소방서 화재대책과장, 이진형 육군1789부대장 등 각 기관대표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서대학교,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 육군 1789부대 1대대와 시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드론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산시가 도내 최초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국도교통부) 구축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지역별 특성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론 관제시스템을 추가 구축함에 따라 안전취약지역 탐색용 드론 도입과 더불어 실종·재난 등 위급상황 시 드론 운용에 있어 유관기관 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드론 영상 공유를 통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체결하게 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재난·재해, 수색·구조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협약기관 간 장비, 인력 지원 ▲드론 실시간 영상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를 통한 영상정보 공동 활용 ▲비행승인, 항공촬영 절차 간소화 및 통합방위작전 시 드론 활용 ▲드론 교육 활성화, 기술지원, 공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협력 ▲협약기관 간 관련정보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서산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다.

시는 업무협약 후, 실무자 회의를 거쳐 운영절차 등을 수립해 9월중 드론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며, 협약기관과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

침이다.

또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위급상황 외에도 행정업무 전반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드론은 정밀, 신속 비행의 장점이 있어 시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통해 서산시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가 이번에 도입한 드론 2대는 무게 16kg 모터가 6개인 헬리콥터이며 일반 영상카메라 외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조난자 확인, 산불진찰 확인, 해수면 온도 측정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산=김정한기자

## 금산군 해외청소년 교류사업 '대만족'

### 말레이시아국제학교 홈스테이 94.6% 만족도 평가

'해외 청소년 교육 교류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산군은 지난 7월 1일 말레이시아 REAL교육그룹과 교육협력 및 교환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리얼 국제학교 학생 20명이 금산군 관내 각 가정에서 머물며 교류활동을 갖는 내용이다.

홈스테이 학생 20명(남8, 여12)은 총 11박12일의 일정으로 방문학생과 관내 학교(3개교-금산중, 금산여중, 동중)간의 정규 스쿨링, 주말 문화체험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금산지역 청소년들의

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우정을 나눴다.

군은 교류사업이 완료에 따라 말레이시아 방문학생 20명, 홈스테이 가정부모 14명, 홈스테이 홈버더 13명 등 총 47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가졌다. 조사 결과 대상의 94.6%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스테이 체험 학생들은 가정의 친절도, 숙식 등 생활문화 측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문화생활에 깊은 관심과 적응을 보였고, 귀국해서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

어가는 등 한류메신저의 잠재적 기대치를 높였다.

홈스테이를 제공했던 가정이나 홈버더 역시 자녀들의 영 어희화, 국제적인 마인드, 인적 네트워크 등에 있어 긍정적 측면이 높았다고 답했다.

다만 학생이 없는 가정으로 배정된 2명의 경우 지루했다 고 답해 향후 교류활동에 있어 배려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군 관계자는 "친자식처럼 보살펴 준 홈스테이 부모님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금산지역 인재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외 교류사업을 지속속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김정환기자

## 보령시 우리 쌀 활용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령시는 지난 16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조리과공교육실에서 웅천중학교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우리 쌀 활용 요리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쌀가루와 설탕 등 모든 재료를 치대대로 계량하여 반죽하기, 찌기 등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캐릭터설기'를 만들어

보며 성취감 및 자신감을 높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떡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으며, 농업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업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3일에는 대전중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다육아트' 체험이 진행될 예정으로 식물의 아름다움을 예

술로 승화시켜 생명존중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강성희 농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농산업의 1차 생산과 생명공학, 생명산업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진로 선택의 폭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 미래 세대 위한 2020년도 시책구상 보고회

## 예산군, 269건의 신규시책 및 중장기시책 · 인구증가시책 등 발굴

예산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역점 추진 시책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신규 시책 및 중장기시책, 인구증가시책 등을 논의하는 “2020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책구상 보고회는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이상용 부군수와 국장, 부서장, 팀장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신규시책 보고와 군수 주재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0년도에는 신규시책 189건, 중장기시책 44건, 인구증가시책 36건 등 모두 269건의 시책이 발굴됐으며, 올해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내포혁신도시 지정,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지역 발전전략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국정운영과 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연계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 성장동력 확보, 군민 중심 섬김행정 실현과 분야별 인구증가시책 마련 등이 주요 시책구상 방향으로 제시됐다.

주요 중장기 시책으로는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고령자복지주택 연계형 노인종합복지시설 건립 ▲지하시설물 전

산화사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슬로시티 차별화와 활성화를 위한 옛것 복원 사업 ▲현종대왕 태실 명소화 사업 ▲도시숲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삼교천 체육공원 조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아리수 과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시책, 대규모 장기시책,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토론과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까지 각 부서에서 발굴한 1차 신규시책에 대해 정

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있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선봉 군수는 “다가오는 2020년은 민선 7기 3년차 도래에 따라 군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는 시기이자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선제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정책과 도정에 부합하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전략 발굴 대응과 전략적 예산확보를 통해 2020년 새로운 동력 창출로 예산군 발전과 군민 행복 창출에 힘써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구기자

## 서산시, 나누고비우는 나비 냉장고 2호 운영

### 수석동 행정복지센터 현관에 설치해 누구나 이용 가능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16일 수석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경래 수석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2호 나눔냉장고 현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문2동에 오픈한 제1호 나눔냉장고에 이어 제2호 나눔냉장고도 서산시

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을 받아 오픈했으며, 수석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수석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설치되어 주5회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나눔냉장고는 독일의 푸드 셰어링(Food sharing) 운동처럼 나눔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물품을 채워놓고, 필요한 누구나 꺼내어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식사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아동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시는 나눔냉장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 · 개선할 예정이다.

진중관 사회복지과장은 “제1호, 제2호 나눔냉장고 까지 오픈하면서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어 냉장고 한 대가 지역 내 이웃사랑과 따뜻한 정을 쌓는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나눔냉장고 사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홍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대전교육청,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관련 학생 · 학부모 간담회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에서 학생 · 학부모를 대상으로 17일 ‘2020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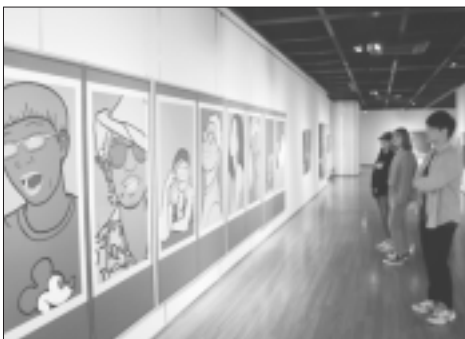
이번 간담회는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교육부 ·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 등)가 참가하여 2020년 마이스터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 운영 제도이며, 2020년 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부터 우선 적용되며, 대전에서는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교장 안희명)와 동아마이스터고(교장 김용량)가 대상 학교이다.

교육부 박강현 교육연구사는 “단위”의 ‘학점’으로 전환,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최소 이수 단위 적정화, 마이스터고 학점제 학사제도 적용,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 및 수업 다양화를 통한 마이스터고 학점제 안착 지원 등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발표 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 청취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정환기자

## 호서대 중앙도서관 '윤기원 초대전 FRIENDS' 개최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 중앙도서관에서는 건학 41주년을 맞아 팝 아티스트 윤기원 작가의 FRIENDS>展을 10월 1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윤기원 작가의 주변 인물들을 화려한 색과 간결한 선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인물의 표정과 외상은 경쾌하고 시원한 팝아트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작품들은 팝아트 장르로, 팝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중문화를 그림의 소재이자 정보로 이용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평면화된 색면과 원색을 사용하여 관람객들이 좀 더 친근하게 작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전시는 아산캠퍼스 학술정보관 갤러리에서 10월 18일까지 전시되며, 개관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중앙도서관은 전시기간 중 이달 24일 ‘작가와 대화 시간’을 통해 작가와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외부인 관람 가능, 문의 041-540-5951/5166)

아산=리량주기자

##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중촌복지센터와 손잡고 복지전문가 양성

### 가족회사체결 후속 현장견학, 자치행정학과 연계 논의, 학생 취업기회 확대 기대

충남도립대학교 허재영 총장이 17일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지역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재학생 취업문을 넓히기 위해 전력을 쏟았다.

종촌종합복지센터는 지난 7월 충남도립대학교와 산업맞춤형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기업지원 정보교류와 현장실습, 산업체 견학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대학 일자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허재영 총장은 대학 일자리센터 관계자와 함께 종촌종합복지센터 현장 이용시설을 견학하고 대학 및 일자리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허 총장은 대학 자치행정학과주 · 야 2학년) 야간과정을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이 가능한 것을 강조하며 지역 사회복지의 미래를 책임 질 전문인력 양성에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이어 종촌종합복지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가정 · 성폭력통합상담소 등 다방면에 걸쳐 종합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필요한 분야에서 재학생 현장견학과 학생 채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해 가지고 제안했다.

허재영 총장은 “종촌종합복지센터는 날

로 복잡 · 다양해지는 세종시민의 복지요구를 충실히 충족하는 지역 최고의 복지기관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종촌종합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립대학교 또한 도민이 설립한 충남 유일의 공립대로 지역 사회에 헌신하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대학 운영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양 기관이 함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가자”고 덧붙였다.

청양=정성범기자

## 한타엔테크놀로지, 4년 연속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 편입

### 국내 포함아시아 기업 중 자동차 부품 산업 내 유일 ‘DJSI 월드’ 편입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대표이사 조현범, 이하 한국타이어)가 ‘2019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 이하 DJSI 월드)’에 4년 연속 편입되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대표 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19 DJSI 월드’는 평가 대상인 글로벌 상위 252개 기업 가운데 126%인 318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국내 기업 중에는 19개 기업만 편입됐다. 한국타이어는 자동차 부품 산업(Auto Components) 내 최고 회사 중 하

나로 선정되며 4년 연속 글로벌 Top Tier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기업 중에서도 유일하게 자동차 부품 산업 내 ‘DJSI 월드’에 편입됐다.

금년에는 사회공헌, 공급망 관리 등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사내 전문영역별 7개 CSR 위원회를 통해 임직원들과 끊임없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전사 차원의 CSR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이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천연고무 가치 공급망의 경제 · 환경 ·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정한 이래 공급망 구성원들과 함께 인권 및 환경 보호, 투명성 제고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재배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천연고무의 생산

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전담 의사결정 기구 운영, 사내 투자의 사 결정 시 탄소가격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지속해온 점을 인정받아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6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따뜻한 사회주택 사업’ 및 지역사회의 이슈를 구성원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월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최상위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기업의 경제 · 환경 · 사회 각 영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실질적인 성과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해나·나루와 함께 하는 손 씻기 실천!” 당진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당진지역 어린이집 1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019년 위생 특화사업 ‘해나·나루와 함께하는 손 씻기 위생 · 안전 대탐험’을 진행 중이다. 이번 특화 사업은 2017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결과당진지역 시민들의 손 씻기를 통한 감염병 예방인지는 98.9%로 높은 반면 실제 손 씻기 실천율은 83.6%로 낮다는 점에 착안해 손 씻기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대덕대 보건의료행정과, 취업 정보공유 위한 현장실습 평가회 대덕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는 17일 교내에서 현장실습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여름방학 4주 이상 현장실습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현장실습기관을 소개하고 실습경험담, 소감을 발표하였다.



온양3동 행복키움, 행복나눔 장학금 전달식 가저 아산시 온양3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형관)는 지난 16일,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전충남중기청 '초기창업패키지 대전충남지역 연합투자IR 및 상담회'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7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 ·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VC) 등이 한자리에 모인 '2019 초기창업패키지 대전충남지역 연합투자IR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전국 최초 '반려동물 아카데미 펫시터 양성과정' 개강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동캠퍼스 E3, 학술정보센터 3층)은 16일 오후 3시, THE PET (티 펫코리아)와 '반려동물 아카데미 펫 시터 양성과정' 개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온주복지관, 추석맞이 온주절기 나눔행사 진행 굿네이버스 온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채종병)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 211명을 대상으로 온주절기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재대 정강환 관광축제대학원장 주축 '금강역사식후경' 협의체 출범**  
 (사)한국문화관광포럼은 17일 대전 롯데호텔에서 '금강역사식후경'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엔 대전·공주·부여·익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음식 및 역사 콘텐츠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관광산업 부흥을 예고했다.



**대전신일여고, 친환경 실천가 동아리 자원순환공모전 대상 수상**  
 신일여자고등학교(교장 이은월) 동아리 '친환경 실천가들(Eco-Life Doors)'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부가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진행한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갈리리수양관,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 '4만 서명부' 전달**  
 공주시(시장 김점섭)는 지난 16일 갈리리수양관(목사 정태고)으로부터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를 지지하는 4만인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현대제철과 함께하는 주니어 공학교실 개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지난 9월 3일부터 기지초와 상록초교를 시작으로 '현대제철과 함께하는 주니어 공학교실' 2학기 수업을 개강했다.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강사인력과 공학 키트 재료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온양3동행복키움, 적십자회와 어르신 세신 봉사**  
 온양3동 행복키움(동장 김형관)은 지난 16일, 온양온천랜드(대표 김태규)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세신봉사를 진행했다.



**황운하 청장, 보이스포싱 예방반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17일 오후 농협은행 동산중앙지점과 대전온누리신협 본점을 방문해 보이스포싱을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 국립한밭대-(주)한국기술, 3D프린팅 분야

#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위한 업무협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17일 산학협력동관에서 (주)한국기술과 3D프린팅 분야 핵심 기술개발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고성능 3D프린터인 'Fabpro 1000'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Fabpro 1000'은 약 1,000만원 상당으로 시중의 동종 프린터들에 비해 최대 4배 속도를 자랑하고 정밀소형부품 시제품 제작에 적합한 산업용 3D프린터이다.

이 날 행사에는 한밭대 산학협력단장(최종인 교수)과 (주)한국기술 송종하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밭대 3D프린팅사업단장(최규석 교수)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그간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던 3D프린팅 교육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 트렌드에 부합한 실질적인 3D프린팅 전문인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한국기술은 이를 위해 각종 3D프린팅 장비 및 인프라를

제공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현장교육과 취업연계 등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한밭대 산학협력단 최종인 단장은 "전통적인 산학협력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국내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살아있는 산

학연계를 이루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특히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단종부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산업현장 적용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국기술은 3D프린팅 글로벌 선도기업인 3D Systems사의 국내 최초 리셀러로 최첨단 산업용·전문가용 장비부터 고객 맞춤형 시제품 제작까지 3D프린팅 전주기 솔루션을 공급하며 우리나라 3D프린팅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1990년 SLA 3D프린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래 28년의 숙련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최근 전문 인력양성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오전 11시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에서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과 농업인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MOU를 체결했고, MOU 이후 김기문 회장은 NH농협은행을 방문,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펀드에 가입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중소기업계가 힘을 모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서산소방서, 이동형 119

안전체험차량 운영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서산시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동형 119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형 119안전체험차량은 기존의 이륜형식의 소방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지진체험, 미로체험, 비상구체험, 소화기 사용법 등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다.

이번 이동체험차량 교육은 만 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신청원인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동형 119안전체험차량 교육신청은 서산소방서 홈페이지(www.cn119.go.kr/seosan)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공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서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689-0262)로 하면 된다.

서산=김정환기자

## 공주대, 발전기금 합동 기탁식 가저

대학발전기금 합동기탁식 및 전광판 제막식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는 17일 대학본부 5층 중회의실 및 중앙도서관 앞에서 대학 발전기금 합동기탁식 및 전광판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대학 발전기금 기탁은 이일주 교수, 박상훈 교수, 한경자 여사, 한종웅 SK텔레콤 중동대리점 대표, 엄순천 삼성컨텐츠 대표, 장원석 MG 삼성세마을 금고 이사장이 각각 1,000만원을 기탁하고, 특히 단체로 NH농협은행 공주대지점이 4,210만원 상당의 현물을 기탁했다.

합동 기탁식 행사는 원성수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 기탁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서 전달,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NH농협은행 공주대지점이 기탁한 중앙도서관 앞에 설치된 전광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한편, 공주대 발전기금은 장학금, 도서확충, 교육시설, 학술연구 등 인재육성과 학문발전을 지원하는 데 소중히 사용되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 백사청송 어우러진 장고도로 떠나볼까

해양수산부 가을에 걷기 좋은 섬' 9선 선정



마을 뒤편에 있는 당너머 해변과 명장섬 해변은 주변이 조용하고 알맞은 수심, 고운 모래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변의 물이 빠지면 명장섬까지 신비의 바닷길이 열려 조개, 낙지, 해삼 등을 잡을 수 있다.

또한 대머리선착장에서 해안길을 지나 소나무숲길 구간을 걸어볼 수 있는 해안경관산책로가 으뜸이고, 명장섬 너머로 떨어지는 일몰은 서해안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장고도가 자랑하는 문화전통으로 2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등바루 놀이'가 있다. 음력 정월 대보름 전후로 해당화가 만발하는 계절이 되면 마을 처녀들이 놀이 하루 전날 바닷가에 둥근 돌담(등바루)을 쌓고 돌담 안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바다 쪽을 향해 1m를 더 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편, 장고도는 대천항에서 9월 말까지 오전 7시 40분, 오후 1시, 오후 4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오전 7시 40분, 낮 12시 10분, 오후 3시 1일 3회 운항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해운 홈페이지(http://www.shinhanhewoon.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령=김정미기자



## 당진경찰서, 현대제철과 MOU 체결

'청소년이 미래다' 모범청소년 보호·지원 위한 업무협약

당진경찰서(서장 한상오)는 17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현대제철(사장 안동일)과 '모범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상오 서장과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협약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효심이 깊고, 선행하는 등 지역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모범청소년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로 성사될 수 있었다.

협약내용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모범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3대 치안정책(젠더폭력 근절, 실종대책,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협력 ▲기타 청소년 진로 탐색 및 문화생활 지원 등이며, 경찰에서 청소년 선도 방안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현대제철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성인이 되는 때까지 재정적 지원하기로 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건보공단-건강대병원, 건강·보건수준 향상 MOU 체결

## 지역주민 건강 위해 함께 '맞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건강보험공단)는 17일 오후 3시 30분 병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건강·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건강검진 안내 및 검진 활성화 등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재난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협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협력 ▲기타 지역보건 의료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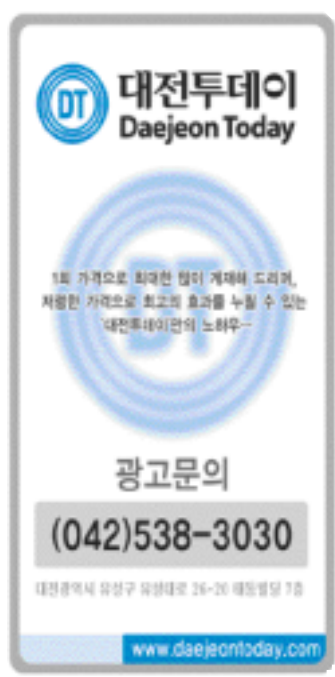
건강대병원 최원준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주민

들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외래환자 대상으로 발급되는 진료비영수증 여백을 활용해 개인별 국가건강검진 대상여부 안내를 지난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으로 12만 명연 방문자 수에게 홍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희무 본부장은 "업무협약을 통한 적극적인 협조 및 상호 지원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 힘쓸 것"이라며, "공단은 보장성 강화를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 추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기고



고무열 민주당당 인권위원장

여당과 정·청의 빈약한 인재풀과 어설픈 국정운영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이지 않아 국민은 실망감만 쌓이고, 원조 적폐 세력인 한국당은 반성언커녕 적반하장과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민심을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게다가 기회의 균등과 평등과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고 가짜 진보와 보수가 판을 치고 극한 대립으로 갈등만 난무한다. 국제적 대립과 사회적 대립으로 인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시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지난날 다당제를 주장하던 과거 자민련과 국민의당은 지구력과 인내력 부족으로 파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당은 조급함으로 인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연대까지 모두 항로 잃은 부평초 신세로 방황하고 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말이 틀리지 않다. 보수는 부패로 멸하고 진보는 분열로 멸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처럼 보여주고 있다.

## 난파된 대한민국 제3지대

현재 각 당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신당 창당이 되겠지 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주도해 무언가 이룰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호응도 싸늘하다.

이렇게 준비 없이 시간만 보내다 총선이 임박하면 또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양당 기독교 세력 중 하나의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은 자존심과 명분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기독교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국가와 국민을 압박하며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의 정치로 종식시키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3지대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계기이고 다당제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위기는 곧 기회인데, 결론은 누가 그것을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다. 마음은 가득 하나 능력의 한계를 각자 알고 있고, 결론은 단결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겁하지만, 인조의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의 심정과 이순신 장군의 금신전선 상유심에(今臣戰船 尙有十二) 즉, 신에게는 아직 전선 열두 척이 남아 있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제3지대는, 난파된 배 부스러기와 튜브에 의지한 채 겨우 숨만 물이쉬면서 구조조산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잠용들이여 분연히 털고 일어나 구국의 결단을 하라.

## 기고



권병석 국립하늘숲추모원장

국내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은 전통 장묘문화까지 빠르게 변화시켰다. 2001년 385%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어느덧 846%에 이르렀고, 친환경 장묘문화인 자연장이 새로운 장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내 출생률이 0.98명에 불과한 현실과 묘지 관리에 관심이 없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전통 장례방식을 후손에게 기대하지 못하는 기성 세대의 심리도 자연장 문화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장은 1998년 스위스에서 천

##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다

구의 유언으로 수목 주변에 유골을 안치했던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고려대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으로 이슈화되었다.

자연장은 안치 형태에 따라 수목장, 화초장, 잔디 장으로 구분하고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을 자연장지라고 하며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하는데 단연,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을 품은 자연장지일 것이다.

산림청은 2006년 수목장림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5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 6번지에 국내 첫 국립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을 개원하였다.

최초 10ha면적에 2009분으로 시작하였으나 개원 3년만에 90%가 분양되었고, 이에 따라 55ha로 면적을 확대했으나 나날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수목장림은 단순 묘지가 아니라, 사자(死者)의 안식과 생자(生者)의 치유 공간이며, 숲을 기반으로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시설이다.

“산을 좋아하는 엄마와 아들 여

기 잡니다”

“문득 그대가 그리운 것은, 이별 또한 사랑일지라”

하늘숲추모원에 남겨진 추모글을 볼 때면 그 안에 숨겨진 그리움과 아픔의 공명에 맞게 되는데 당사자들의 심정은 오죽하랴. 우리는 사자(死者)의 안식과 남은이의 치유까지 생각해봐야 한다.

생자필멸(生者必滅)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떠난 이에게는 끝이지만, 남은 자에게는 ‘그리움’과 ‘치유’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수목장림이 사자의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살아있는 자의 치유와 생명의 숲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을 품은 숲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시설시설에서 훼손을 동반한 외곽된 조성·관리로 수목장림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연장을 시작한 스위스, 독일의 경우 별도 시설 없이 자연숲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목장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심지어 하층 식생을 존치하거나 꽃송이조차 반입을 금지하는 곳도 있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유일의 국립수목장림으로서 수목장림의 모

텔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최초 자연 숲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장례 의식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편의시설이 허용되었다.

최근 수목장림에는 가족단위로 방문하여 도시락을 먹고 책을 읽고 심지어 반려견을 동반해서 방문하는 사례들까지 볼 수 있는데 수목장림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장례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가족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도 조금씩 활성화 되고 있는데 수목장림을 통한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수목장림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겨 보고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하늘숲추모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본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인데 묘지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추석, 수목장림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사설

## 대입제도 개편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일 대입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문제점 등 현 상황을 논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18일 실무회의 예정 등 향후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이 학종 문제점을 논의하게 된 데에는 조국 장관의 딸 대학 진학 관련, 수시입학에 대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대입제도가 수도 없이 바뀌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학교 교육이 개선됐다고 피부로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는 듯하다. 특히 제도개선을 위해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학력위주의 대입선발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시입학 비중이 커지면서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시입학 비중이 거의 ¾에 달하면서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학교와 교사에 따라 학생부 기록의 편차가 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부 기록 방식을 표준화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동시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대입제도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바뀔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선돼야 한다. 이미 우리는 대입과 관련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 피해는 애꿎은 학생들에게 돌아갔음을 익히 보아왔다. 따라서 대입제도를 개편하려면 교육과정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고, 모든 입시 관련 정책을 폐쇄화·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교를 자신의 소집이나 적성보다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에 맞춰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정청은 17일로 예정된 대입 제도 개편 실무회의에 앞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여부나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방안 등의 논의부터 했어야 한다. 정작 대입 제도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 교사, 대학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면 개편안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대입제도인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

## 추석민심, 제3세력 거론 많았다

수사 받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초유 사태가 이어지면서 추석 기간에 오간 민심이 화자되고 있다. 조국 장관의 사태로 인해 중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마저 나오고 있다. 기존 정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제3세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도 이를 증명하나 하는 듯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급의 사태를 관망해 오던 호남도 얼마 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광주일고 발언으로 그간 떨어져 있던 한국당을 본격적으로 거리를 둔 적이 됐고 지금의 정권에도 대통령이 광주를 여러 번 들리면서 공을 들였지만 민주당 자체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여전히 격차가 있어 보여서다.

무당층의 등장이 가시화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되는 이유다.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을 지지해온 중도층이 이탈하고는 있지만 한국당 지지로는 돌아서지 않고 있는 것도 추석에 확인한 민심이었다. 그렇다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무당층이 증가하면서 제3세력이 나와 국민의 마음을 잡는다면 가능한 여러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추석 안방에, 마당에 혹은 마을회관에 모인 민심의 얘기 가운데는 이번 조국 장관의 일로 민주당에 실망했지만 한국당을 선포 지지하기도 그렇다는 말이 많았다. 내년 4월 총선에 당장 이러한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한 정치권의 제3세력에 의한 신당 창당 움직임도 거론되는 이유다.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정치인을 부르기 어렵다면 해외에 체류 중으로 알려진 미래당의 안철수 전 의원이 대

안일 수 있다.

당장 문재인 정권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여러 비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부동층이 확대되는 큰 이유로 보인다. 다른 정권과 마찬가지로 결론인데 그만큼 공정과 정의의 부르짖던 정권이라 상대적으로 실망감도 클 수 있다. 그렇다고 분위가 관리 못하고 헛발질 조심 못하는 한 국민 지지율이 나아지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제3세력의 등장은 기정사실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반사이익으로 오히려 다른 3세력이 엮고 갈 상황이다.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무려 한 달 이상 벌어진 의혹의 배경이 더 어떻게 확대될지도 관건이다. 당연히 정당의 지지율 상승폭에 연관된다는 정치평론가의 그것이 아니라도 국민들은 이 상황에 은근한 기대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기본인 정당정치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제3세력이 등장하고 민심을 흡수하는지가 지금으로서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어느 누가 어느 정당이 빠르게 흡수할 지가 총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물론 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얼마전부터 외친 제3세력이 과연 들어맞을지는 지금으로서 의문이다. 이미 동력을 잃은지 오래된 손 대표인 탓이다. 이런 이유로도 미래당을 대신할 제3세력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미래당 안에서 재출발이 어렵다면 제3 신당 추진이 필요하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총선에서 승산은 곧 민심의 흡수력에 있다. 지금이 그 기회이고 망설이면 놓친다.

## 공주시, 내달부터 택시요금 인상… 기본요금 3300원

공주시 택시요금에 다음 달 1일부터 기본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시는 지난 16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운송비가 인상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6년 만에 이 같이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종전 15km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현행 110m당 100원에서 9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현행 40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사업구역 외 할증은 20%, 호출요금은 500원으로 현행과 같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을 홈페이지 고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인

상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택승구 경제도시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종사자의 경영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인상된 택시요금만큼 전철 교통과 지도 단속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경영난이 가중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탈기 위해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까지 법인택시 24대를 감차하고 이후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감차를 추진한다.

또한, 택시업계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택시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 조례제정과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공주=정성범기자

<b>대전투데이</b>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바른신문					
발행·편집인	김 현 정	회 장	김 성 구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체·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d-mail@ham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광판 시대**  
**광고문의는 대전투데일로**

**광고문의 : 042-538-3030**